

여호와의 손에 인도됨

하박국의 두 돌판

Jeff Pippenger

2012-10-16

하박국의 두 서판 95쪽 중 4쪽

대체로 한 시간가량의 발표에서 여덟 쪽의 노트를 모두 다루는 것은 제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우리는 20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노트를 다 읽을 의도가 없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몇몇 구절들을 읽으려 합니다. 이는 LiveStream으로 시청하면서 노트를 내려받을 수 있는 분들을 위한 것이며, 또한 결국 이 내용을 DVD로 보게 될 분들이, 만일 이 글들을 이미 이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를 자신들을 위한 기록으로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하박국의 두 돌판이며,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엘렌 화잇이 이 1843년 도표에 제시된 진리들과 일치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마친 처음 세 발표는 엘렌 화잇이 『초기문집』 236쪽에서 2520 기간 예언을 유효한 것으로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었다.

그녀는 1844년 3월의 첫 번째 실망에 관하여 말하면서, 그 실망 이후 밀러파가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였고, 그 결과 2520, 2300, 그리고 1335에 대하여 1843년을 예언하도록 그들을 이끌었던 바로 그 동일한 증거가 이제 1844년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며, 그 예언적 기간들이 1844년에 끝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녀가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예언적 기간은 이 두 가지[1843년 도표에 있는 2520과 2300을 가리킴]이지, 1335가 아님을 논의하였다. 1335는 서기 시대에 시작되었고, 1843년에 끝났다. 그러므로 그녀는 2520과 2300년 예언에 대한 그 이해에 자신의 지지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계속해서, 그 기간 동안 그들이 세 개의 시기 예언이 1844년에 끝났음을 입증하기 시작하였을 때, 바로 이것이 밀러주의자들을 교회 밖으로 몰아낸 박해를 초래하였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세상 끝에 이르러 남녀 사람들이 2520이 1844년에 끝났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시한다는 이유로 재림교회 안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여호와의 손에 의해 인도됨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바로 여기 있는 이것[1843년 도표의 AD508을 가리킴]입니다. 여러분이 이 도표들을 살펴보지 않았다면, 화잇 자매는 이 1843년 도표에 대하여 “나는 주께서 이 도표 안에서 지도하시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며, 또 이 1850년 도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도표의 출판에 함께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하나님께서 이 두 도표의 제작에 관여하셨으며, 그것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인간적으로 의도된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밀러파 사람들은 그것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였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설계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기원전 677년부터 그들이 믿었던 서기 1843년까지 내려오면, 이것이 2520을 규정하는 기둥[1843년 도표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 기둥을 가리킴]인데, 그것은 기원전 677년에 시작하여 그들은 서기 1843년에 끝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이 도해적 예증을 1850년 도표에도 그대로 유지하였는데, 여기[왼쪽에서 세 번째 기둥을 가리키며]의 기원전 677년부터 여기, 곧 서기 1844년에 이르기까지이다. 이것이 두 도표 모두에 존재하는 2520의 기둥이다.

그리고 이 기둥들의 한가운데에는, 두 경우 모두, 십자가가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십자가 아래에는 '매일'에 대한 언급이 있다. 그리고 '매일'의 상징인 이교주의, 곧 이교 종교의 뿌리는 자기 높임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두 도표 모두에 반드시 인간의 손만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함께하셨음을 볼 수 있다.

우리과 여러분, 혹은 누구든지 자기 높임이 제거되기 위해서는, 이 두 도표 모두에 반영되어 있는 십자가의 발아래로 나아와야 한다. 그 교훈이 예증되어 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가운데에 십자가가 있는 2520의 기둥들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다니엘 9장의 성취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한 이레 동안 언약을 확증하시러 오셨을 때, 그 한 이레가 2520일에 해당하며, 그 이레의 한가운데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이 도표들 각각의 이 기둥들의 중앙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게 되는데, 이것들은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언약을 확증하신 2520일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매일'을 다루고, 그것에 대한 엘렌 화잇의 지지를 살펴보려 한다.

"9월 23일, 주께서 그분의 손을 두 번째로 펴사 그분의 백성의 남은 자를 회복하고 계심을 내게 보이셨으며, 이 모으는 때에는 노력이 배가되어야 함을 보이셨다. 흠어짐의 때에는 이스라엘이 맞고 찢김을 당하였으나, 이제 모으는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고치시고 싸매실 것이다. 흠어짐의 때에는 진리를 전파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이 거의 효과를 내지 못하였고, 거의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모으시려고 손을 드신 지금, 진리를 전파하기 위한 노력은 의도된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모두가 그 일에 연합하고 열심을 내야 한다. 나는 지금 이 모으는 때에 우리를 다스릴 본보기로 삼기 위해 누구든지 흠어짐의 때를 언급하는 것은 잘못임을 보았다. 이는 만일 하나님께서 그때 하신 것 이상으로 지금 우리를 위하여 행하지 않으신다면, 이스라엘은 결코 모아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1843년 도표가 주의 손에 의해 지도되었으며, 그것이 변경되어서는 안 되고, 그 수치들은 그분께서 원하신 그대로였으며, 그분의 손이 그 수치들 가운데 얼마간의 오류를 덮어 감추고 있었으므로 그분의 손이 거두어질 때까지는 아무도 그것을 볼 수 없었음을 보았다."

그때 나는 '매일'(다니엘 8:12)에 관하여 보았는데, '제사'라는 말은 사람의 지혜로 덧붙여진 것이며 본문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과, 주께서 심판의 때에 대한 외침을 전한 자들에게 그것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주셨다는 것을 보았다. 1844년 이전에는 연합이 존재하였을 때 거의 모든 이가 '매일'에 대한 올바른 견해 위에 하나로 연합하였으나,

1844년 이후의 혼란 속에서는 다른 견해들이 받아들여졌고, 그 결과 어둠과 혼란이 뒤따랐다. 1844년 이후로는 때가 더 이상 시금석이 되지 않았으며, 다시는 결코 시금석이 되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내게 보여 주신 바에 따르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나아가 흠어진 주의 자녀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나는 어떤 이들이 때를 전파함으로써 생겨나는 거짓된 흥분을 얻고 있음을 보았다. 그러나 셋째 천사의 기별은 시간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강하다. 나는 이 기별이 그 자체의 기초 위에 설 수 있으며, 그것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시간이 필요하지 않음을 보았다. 또한 그것은 큰 권능으로 나아가 그 일을 이룰 것이며, 의 가운데서 단축될 것임을 보았다.

“그때 나는 주께서 오시기 전에 옛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자기들의 의무이며,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믿는 큰 오류 가운데 있는 어떤 이들을 보게 되었다. 그러한 견해는 셋째 천사의 기별 아래 있는 주의 현재의 사업으로부터 마음과 관심을 돌려놓게 하기에 알맞은 것이다. 이는 아직도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들의 마음이 그곳에 가 있게 될 것이며, 자신들과 다른 이들을 그리로 데려가기 위하여 그들의 재물을 현재 진리의 사업에서 거두어 두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러한 사명이 아무런 참된 유익도 이루지 못할 것이며, 극히 소수의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초림조차 믿게 하는 데에도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하물며 그분의 재임을 믿게 하는 데에는 더욱 그러할 것임을 보았다. 나는 이 일에 있어서 사탄이 어떤 이들을 크게 기만하였으며, 그들 주변에 있는 이 땅의 영혼들이 그들로 말미암아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인도될 수 있었음에도, 그들이 그들을 버려두어 멸망하게 하고 있음을 보았다. 또한 나는 옛 예루살렘은 결코 재건되지 않을 것이며,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지금 이 모이는 때에 이러한 것들로 이끌어, 그들로 하여금 주의 현재의 사업에 그들의 온 관심을 쏟지 못하게 하고, 또 주의 날을 위한 필요한 준비를 소홀히 하게 하려고 사탄이 온 힘을 다하고 있음을 보았다.” 초기문집, 74-76.

우리가 제시하고자 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초기문집』 74쪽의 한 구절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전에도 다룬 바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다루게 될 이러한 많은 것들을 우리는 전에 이미 다루었지만, 대다수는 『초기문집』에 있는 이 구절이 하나의 변천 과정을 거쳤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초기문집』이라는 책에 현재 존재하는 형태대로라면, 사람들은 『초기문집』에 있는 내용을 사용하여 진리를 왜곡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의 출처 문서들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이 진리를 왜곡하는 논리는 제거됩니다.

그러므로 이에 관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상시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나는 단지 두어 가지 점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만 『초기문집』의 이 구절에서는, 맨 처음의 두 생각, 곧 9월 23일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9월 23일에 관하여, 만일 그것이 익숙하지 않다면, 거기에 1850년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곧 1850년 9월 23일입니다. 이것은 매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문단의 끝부분은 우리가 이미 지난 며칠 동안 여기에서 다루어 온 다음과 같은 진술이다. “나는 1843년 도표가 주의 손에 의해 인도되었으며, 그것이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그 수치들이 그분께서 원하신 그대로였다는 것과, 그분의 손이 그 위에 있어 그 수치들 중 얼마간의 오류를 가리셨으므로, 그분의 손이 거두어질 때까지는 아무도 그것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을 보았다.”

둘째 문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나는 ‘매일’과 관련하여 보았다(Daniel 8:12)” 이제 나는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우리는 이것을 틀림없이 후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다루게 될 것입니다—1843년 도표에서 매일이 제시될 때, 바로 여기에는 “매일을 제하여 버림”이라고 되어 있으며, “Daniel 12:11 and 12”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850년 도표에서는, 매일을 다룰 때, “이교의 지배, 곧 매일이 제하여질 때, Daniel 11:3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도표에서 그들이 Daniel 11:31과 Daniel 12:11로부터 확인하고 있는 강조점은 매일을 제하여 버리는 일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Daniel 11:31과 Daniel 12:11에서 “take away”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sur이며, 그 뜻은 “take away”이다. 그것은 “remove”를 의미한다.

그러나 Daniel 8장 11절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제거된다고 말하는 곳에서는, 그것은 다른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것은 rum이며, 그 뜻은 “들어 올리다 그리고 높다”입니다.

그러므로 윌리엄 밀러는 크루든의 콘코던스를 사용하였는데, 크루든의 콘코던스는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관한 어떠한 통찰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께서 밀러 운동의 사람들을 인도하고 계셨던 것이다. 이는 다니엘서에서 “매일”이 언급되는 세 곳, 곧 다니엘 8장, 다니엘 11장, 다니엘 12장 가운데, 11장과 12장에서는 “제하여지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실제로 “제하여지다”를 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 도표들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는, 이교주의가 제거되었을 때 1290일과 1335일의 예언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니엘 8장에서 매일이 제거될 때, 그것은 어떤 것이 제거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교주의의 종교가 들어 올려져 높임을 받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밀러파는 그것을 옳게 이해하였다. 그들은 매일이 제거되는 일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다니엘서의 두 장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여기 『초기문집』에서, 그리고 우리가 원출처 문서들을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면, 여러분은 이 장에서 원래 Daniel 8:12에 대한 이 언급이 거기에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나는 1882년에 그들이 『초기문집』을 인쇄할 때 엘렌 화잇이 그것을 거기에 포함시키라고 말했는지, 아니면 편집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것을 삽입했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그것 때문에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기에서의 ‘제하여 버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문단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그 후 나는 ‘매일’(Daniel 8:12)과 관련하여, ‘희생 제사’라는 말이 사람의 지혜로 보충된 것이며 본문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과, 심판의 때를 외친 자들에게 주께서 그것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주셨다는 것을 보았다.”

이제, 몇 해 전 독일에서 독일의 저명한 목회자들과 독일의 몇몇 신학교 교수들과 함께 모임을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발표하였고 그들은 이 메시지를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탈리아에서 온 한 목사가 있었는데, 그는 이 구절에 관하여 어리석은 주장들 가운데 하나를 제기하였다. 그가 말한 바는 다음과 같았으며—그리고 ‘매일’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어리석은 주장들이 있으므로, 여러분은 이러한 어리석은 주장이 자주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우리는 이것을 여기 기록에 남기고자 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때 나는 ‘매일’(Daniel 8:12)에 관하여 보았는데, ‘희생’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지혜로 보충된 것이며 본문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주께서 심판의 시간의 외침을 전한 자들에게 그것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주셨다는 것을 보았다.” 여기에 그 어리석은 주장이 있다. 그들은 엘렌 화잇이 여기서 ‘매일’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희생’이라는 단어가 인간의 지혜로 첨가되었으며 본문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는 선구자들의 이해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한다. 알겠는가? 그러므로 이 이탈리아인 목사는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내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목사님, 다음 문장을 제게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문장은 이렇게 말한다. “연합이 존재하였던 때, 곧 1844년 이전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매일’에 대한 올바른 견해 위에 연합되어 있었다. . . .” 이것은 인간적 지혜로 “희생”이라는 단어를 덧붙인 것이 올바른 견해라는 뜻이 아니다. 여기서 엘렌 화잇은—and this is a hard one, this is a hard one for these people that are refusing to hear and are refusing to see in Adventism today. 이 문단 때문에, 아마도 예언의 신의 어느 다른 문단보다도 더 많은 신학자들이 자신들의 구원을 잃어버렸을 것이다. 나는 과장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것이 아마도 정확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20세기 초반, 매일에 대한 그릇된 견해가 재림신앙 안으로 도입되고 있을 때, 그 문제를 두고 양편에서 싸우던 모든 사람은 자신들이 바로 이 문단을 둘러싸고 싸우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스티븐 해스켈이 매일이 이교주의라는 개척자들의 견해를 변호하기 위해 나섰을 때, 그는 무엇을 하였는가? 그는 이 1843년 도표를 재인쇄하였고, 이 문단을 그 하단에 실었다. 그러므로 이 문단이 논쟁의 초점이며, 바로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칼 위에 엎드려져 죽었다.

그러므로, 내가 여기서 여러분이 보기를 바라는 바를 최소한의 수준에서 말하자면, 최근에 화잇 호스 미니스트리스의 스티브 월버그 같은 사람들이 이 기별을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주장 가운데 하나는, “엘렌 화잇은 ‘그 날마다’에 대하여 결코 어떤 입장도 갖지 않았으므로, 나 역시 그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어리석은 입장이었다. 그러나 엘렌 화잇이 그것에 대하여 입장을 갖지 않았을 가능성을 그에게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그녀는 이 인용문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녀는 선구자들이 그것에 대하여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한다. 설령 그녀 자신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그녀는 올바른 견해가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것은 잘못된 견해도 있다는 뜻이고, 아마도 여러 잘못된 견해들이 있다는 뜻이다.

밴스 페럴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밴스 페럴 말입니다. 사람들은 밴스 페럴의 예언 해석을 신뢰하지만, 나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밴스 페럴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는 「매일」이 이교주의와 그리스도의 성소 봉사를 둘 다 나타낸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는 이 상징이 사탄과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종류의 추론에 어떤 분별력이 사용되고 있는가?

좋습니다, 화잇 자매님, 여기서 '매일'이 무엇을 나타내든지 간에, 그녀는 올바른 견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여기서는 그 전제에 대해 우리가 동의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나는 '매일'(다니엘 8:12)에 관하여 보았는데, '제사'라는 말은 사람의 지혜로 보충된 것이며 본문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과, 주께서 심판의 때를 선포하는 외침을 전한 자들에게 그것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주셨다는 것을 보았다. 1844년 이전에 연합이 존재하였을 때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매일'에 대한 올바른 견해 안에서 연합되어 있었으나, 1844년 이후의 혼란 속에서는 다른 견해들이 받아들여졌다,"

이것이 내가 그 이탈리아인 목사에게 말한 내용이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좋습니다. 1844년 이후에 '희생제사'라는 단어에 관하여 받아들여진 다른 견해들이 있었다는 역사적 자료를 하나라도 제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는 이 시점에서 그것에서 어느 정도 발을 빼기 시작했다.

1844년 이래로 '매일'에 대한 다른 견해들이 받아들여졌는데, 그것들이 무엇을 산출하였는가? 어둠과 혼란이다.

"어둠과 혼란"에 밑줄을 그으십시오. 이는 화잇 자매가 계속하여 그 '매일'에 대하여 말할 때 어둠과 혼란에 대하여 언급하기 때문이며, 오늘 아침 우리는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보여 드리고자 합니다.

매일의 제사에 대하여 그릇된 견해를 취하면 흑암과 혼란이 생긴다.

"1844년 이래로 시간은 시험이 된 적이 없으며, 다시는 결코 시험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보게 되는 상시적 제사와 관련하여, 여기에 그 논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논지이며, 엘렌 화잇의 아들이 제시한 논지입니다. 다른 이들도 그것을 제시하였으나, 그것을 재림교회의 역사적 기록 속에 남긴 이는 그였습니다. 그 논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것은 시기를 정하는 문제의 문맥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견해들이 받아들여졌다,"—매일에 관하여—"그 결과 어둠과 혼란이 뒤따랐다. 1844년 이후로 시간은 시험이 되어 오지 않았으며, 다시는 결코 시험이 되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내게 보여 주신 바에 따르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나아가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선포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어떤 시기에 매어 달려서는 안 된다.

이제 왜 윌리 화잇이 우리가 시기 설정의 문맥을 보아야 한다고 말하는지 알겠습니까?

그것은 "매일"에 관한 그릇된 견해들이 초래한 혼란을 말하고 있으며, 시간은 하나의 시금석이 되어 오지 않았고; 이어서 시기 설정에 관한 한 단락이 있다.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시기 설정에 관한 이 문단은 원래의 출처 문서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니다. 그리고 시기에 관한 그 진술, 곧 시기가 하나의 시험이 아니었다는 그 문장은 변경된 것입니다. 그것은 Ellen White의 원래 사상을 왜곡합니다. 그녀는 시기 설정에 관한 어떤 것도 the Daily와 연결시키지 않았습니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이 모든 페이지를 다 읽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다만 여러분이 내가 말하는 바를 시험해 볼 수 있도록 그것들을 여러분의 수중에 갖게 하려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한 인간으로서 내가 여러분을 잘못 인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서 화이트—「시기 정하기의 문맥」

옛 견해의 옹호자들은 이 진술의 표현[Early Writings, 74-75.]이 밀러가 주장하고 나중에 유리아 스미스가 되풀이한 매일에 대한 견해에 하늘의 인준을 부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윌리 화이트의 아들인 아서 화이트은 엘렌 화이트의 역사에 관한 그의 여섯 권짜리 저작에서, 그의 아버지가 '매일 드림'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거부한 입장에 대해 언급하면서, 『EGW』 제6권 252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옛 견해의 옹호자들”—곧 매일이 이교주의를 나타낸다고 본 자들—은 “이 진술의 표현[Early Writings, 74-75.]이 밀러가 견지하였고 후에 유리아 스미스가 되풀이하여 말한 매일에 관한 견해 위에 하늘의 승인을 부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만일 아서 화이트가 진실하고 정확한 역사가가 되려 하였다면, 그가 거기서 무엇이라고 말했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그는 거기에 단 한 단어만 넣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서 화이트는 여기서 완전히 빗나갔습니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옛 견해의 옹호자들은 이 진술문의 표현이—이 진술문의 표현이 [Early Writings, 74-75.]—밀러가 주장하였고 마침내 유리아 스미스가 되풀이한 '매일'에 관한 견해 위에 하늘의 인준을 두고 있다고 [정당하게]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 점을 거기에 올바르게 제시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그들이 주장하는 바를 말하고 있을 뿐이며, 마치 그들이 잘못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올바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새 견해의 옹호자들”—그의 아버지 윌리, A. G. 다니엘스, W. W. 프레스콧, 그리고 나는 지금 그 문제로 들어가지 않겠지만—“새 견해의 옹호자들은 그 진술이 그 문맥, 곧 시기 설정의 문맥에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는 방금 『초기문집』 74쪽에 있는 그들의 주장을 당신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새 견해의 옹호자들은 그 진술이 그 문맥, 곧 시기 설정의 문맥에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점에 대하여 나는 아무런 빛도 가지고 있지 않다’(Letter 226, 1908)와 ‘문제 삼아지는 점들을 나는 명확히 규정할 수 없다’(Letter 250, 1908)라는 Ellen White의 반복된 진술, 그리고 그 문제가 그녀에게 강력히 제기되었을 때 그녀가 단정적인 진술을 할 수 없었던 사실은, 그들의 결론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또한 Ellen

White를 통하여 주어진 기별들이 역사적으로 분명히 확립된 사건들과 상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Arthur White, EGW, volume 6, 252.

원본판—Review and Herald, 1850년 11월 1일

그리고 『초기 문집』 74쪽은 언제 인쇄되었는가? 1882년이다. 『초기 문집』은 1882년에 인쇄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초기문집』의 그 구절이 본래 실려 있는 곳은 1850년 11월 1일자 『리뷰 앤드 헤럴드』이며, 여러분의 노트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가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그것을 모두 읽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2쪽에서 네 단락을 보고, 이어서 3쪽에서 네 단락을 본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나는 주께서 최근 이상 가운데 내게 보여 주신 것을 짧게 개요하여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스러움과 천사들이 서로에 대하여 지니는 사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습니다—“너희는 그들의 사랑을 보지 못하겠느냐? 그것을 따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차라리 형제에게보다 자신에게 책망이 돌아가게 하십시오. 나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는 기별이 어떤 이들에 의하여 그 분명한 빛 가운데서 전해지지 않았으며, 우리 구주의 말씀의 참된 목적이 분명히 제시되지 않았음을 보았습니다. 나는 판단하는 것의 목적이 일할 수 있고 스스로 자신을 부양할 수 있는 자들에게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전파하기 위한 것임을 보았습니다. 일할 수 있는 자들을 게으름 가운데서 부양하고 묵인하는 것은 죄입니다. 어떤 이들은 모든 집회에 참석하는 데 열심이었으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떡과 물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집에 있으면서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힘써 행하여 가족의 필요를 채우고, 또한 귀중한 현대진리의 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드릴 것을 가지는 편이 훨씬 더 나았을 것입니다.

나는 어떤 이들이 불신자들 앞에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도록 기도하는 일에 잘못이 있음을 보았다. 만일 우리 가운데 병든 자가 있어, 야고보서 5:14, 15에 따라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그들 위에 기도하게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한다. 그분은 불신자들을 방 밖으로 내보내신 다음 병든 자를 고치셨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는, 믿음이 없는 자들의 불신으로부터 분리되기를 구하여야 한다.

그 후 나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다락방으로 들어가셔서 먼저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다음으로 그들에게 떼신 떡을 먹게 하셨는데, 이는 그분의 찢기신 몸을 나타내는 것이며, 또 포도 열매의 즙을 주셨는데, 이는 그분의 흘리신 피를 나타내는 것이던 그때로 다시 이끌려 갔다. 나는 모든 사람이 이 일들에 대하여 깨닫는 가운데 행하며 예수의 본을 따라야 하고, 이러한 예식을 행할 때에는 가능한 한 믿지 않는 자들과 분리되어 있어야 함을 보았다.

그때 나는 예수께서 성소를 떠나신 후에 일곱 마지막 재앙이 쏟아질 것임을 보았다. 천사가 말하였다—악인들의 멸망이나 죽음을 초래하는 것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진노이다.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 성도들은 기치를 든 군대처럼 강하고 두려운 존재가

될 것이나, 그때에 그들은 기록된 심판을 집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심판의 집행은 1000년의 끝에 있을 것이다.

성도들이 불멸로 변화되고 함께 이끌려 올라가며 그들의 하프와 면류관 등을 받고 거룩한 성에 들어간 후에, 예수와 성도들은 심판석에 앉는다. 책들이 퍼지는데, 곧 생명책과 사망책이다. 생명책에는 성도들의 선한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고, 사망책에는 악인들의 악한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 책들은 법전인 성경과 대조되었고, 그에 따라 그들이 심판을 받았다. 성도들은 예수와 일치하여 악한 죽은 자들에게 판결을 내린다. 보라! 천사가 말하였다. 성도들은 예수와 일치하여 심판석에 앉아, 육체 가운데서 행한 행위들에 따라 악인 각 사람에게 형벌을 정하며, 심판의 집행 때에 그들이 받아야 할 것이 그들의 이름 옆에 기록된다. 내가 보니, 이것이 천 년 동안 거룩한 성이 땅에 내려오기 전에 그곳에서 예수와 함께 성도들이 하는 일이었다. 그 후 천 년이 끝날 때에, 예수와 천사들과 그와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성을 떠나며, 그가 그들과 함께 땅으로 내려오는 동안 악한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 그리고 그때 일찍이 "그를 찢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부활하여, 모든 영광 가운데 계신 그를 멀리서 보게 될 것이며, 천사들과 성도들도 그와 함께 있을 것이고, 그들은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이다. 그들은 그의 손과 발에 있는 못 자국과, 창으로 그의 옆구리를 찌른 자국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 못 자국과 창 자국은 그의 영광이 될 것이다. 천 년의 끝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서시고, 그 산이 갈라져 큰 평지가 되며, 그때 도망하는 자들은 방금 부활한 악인들이다. 그 후 거룩한 성이 내려와 그 평지 위에 자리 잡는다.

그때 사탄은 부활한 악인들에게 자기의 영을 불어넣는다. 그는 성 안에 있는 군대는 적고 자기의 군대는 많으니, 그들이 성도들을 이기고 그 성을 점령할 수 있다고 그들에게 야청한다. 사탄이 자기의 군대를 집결시키고 있는 동안, 성도들은 성 안에서 하나님의 낙원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의 선두에 서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다. 그러다가 갑자기 사랑스러운 구주께서 우리 무리 가운데서 사라지셨다. 그러나 곧 우리는 그분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들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우리는 예수 주위에 모여들었고, 그분께서 그 성의 문들을 닫으시자마자 악인들에게 저주가 선포되었다. 문들은 닫혔다. 그때 성도들은 그들의 날개를 사용하여 성의 성벽 꼭대기로 올라갔다. 예수께서도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분의 면류관은 찬란하고 영화롭게 보였다. 그것은 일곱 겹의 면류관이었다. 성도들의 면류관은 지극히 순수한 금으로 되어 있었고, 별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영광으로 빛났으니, 이는 그들이 예수의 정확한 형상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일어나 모두 함께 그 성의 꼭대기로 올라갈 때, 나는 그 광경에 황홀하였다.

그때 악인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잃었는지를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그들 위에 내뿜어져 그들을 소멸하였다. 이것이 곧 심판의 집행이었다. 그때 악인들은 성도들이 예수와 하나 되어 그 천 년 동안 그들에게 정하여 준 대로 받았다. 악인들을 소멸한 바로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불이 온 땅을 정결하게 하였다. 깨어지고 험준한 산들은 맹렬한 열에 녹아내렸고, 대기 또한 그러하였으며, 모든 그루터기는 소멸되었다. 그때 우리의 기업이 우리 앞에 펼쳐졌으니, 영광스럽고 아름다웠으며, 우리는 새롭게 된 온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우리는 모두 큰 음성으로 외쳤다. "영광, 할렐루야."

나는 또한 목자들이, 성경이 지지한다고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중요한 점을 옹호하기에 앞서, 그들이 신뢰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이들, 곧 모든 기별 안에 함께 있었고 모든 현재 진리에 굳게 선 이들과 의논해야 함을 보았다. 그러면 목자들은 완전히 연합하게 될 것이며, 목자들의 연합은 교회에 의해 느껴지게 될 것이다. 나는 이러한 방침이 불행한 분열을 막을 것임을 보았으며, 그리하면 귀중한 양 떼가 나뉘고 양들이 목자 없이 흩어지는 위험이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다섯 개의 문단으로 결론을 맺는데, 내가 그것들을 여러분을 위해 상자에 넣어 둔 것은, 그 글에서 나온 이 다섯 문단이 결국 『초기문집』에 실리게 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이유로 이 마지막 다섯 문단을 상자로 돌려 놓은 것입니다.

9월 23일, 주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두 번째로 그의 손을 펴셨으며, 이 모으는 때에는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내게 보이셨다. 흩어지는 때에는 이스라엘이 맞아 찢김을 당하였으나, 이제 모으는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고치시고 싸매실 것이다. 흩어지는 때에는 진리를 전파하려는 노력이 거의 효력을 내지 못하여, 거의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모으시기 위하여 그의 손을 드신 이 모으는 때에는, 진리를 전파하려는 노력이 그의 의도된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모든 이가 그 일에 연합하고 열심을 내야 한다. 나는 지금 이 모으는 때에 우리를 다스릴 본보기로서 누구든지 흩어지는 때를 언급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임을 보았다. 이는 만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그때 하셨던 것보다 더 하시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결코 모아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진리가 설교로 선포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면을 통하여 출판되어야 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주께서 내게 1843년 도표가 그분의 손에 의해 지도되었으며, 그 어떤 부분도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주셨다. 또 그 수치들은 그분이 원하신 그대로였다는 것도 보여 주셨다. 그분의 손이 그 수치들 중 얼마간의 오류를 덮어 감추고 계셨으므로, 그분의 손이 거두어지기까지는 아무도 그것을 볼 수 없었다.

그때 나는 '매일'에 관하여 보았는데, '제사'라는 말은 사람의 지혜로 덧붙여진 것이며 본문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주께서 심판의 때를 알리는 외침을 전한 자들에게 그것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주셨다는 것이었다. 1844년 이전, 연합이 존재하던 때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매일'에 대한 올바른 견해 위에 하나가 되어 있었으나, 1844년 이후에는 혼란 가운데 다른 견해들이 받아들여졌고, 그 결과 어둠과 혼란이 뒤따랐다.

주께서 내게 보여 주신 바에 따르면, 1844년 이래로 때는 시험이 아니었으며, 때는 다시는 결코 시험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때 나는 어떤 이들, 곧 주께서 오시기 전에 성도들이 아직도 옛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는 등의 큰 오류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목하게 되었다. 그러한 견해는 제삼천사의 기별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현재의 사업에서 마음과 관심을 돌이키게 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만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그곳에 있게 될 것이며, 성도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우리의 재물은 다른 용도에서 거두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이 이 큰 오류에 빠지도록 버려진 이유가, 그들이 지난 여러 해 동안 빠져 있었던 자신들의 오류들을 고백하고 버리지 않았기 때문임을 보았다.” Review and Herald, November

1, 1850.

그들이 보입니까?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좋습니다. 이 마지막 다섯 문단으로 들어가 보면, 원문에는 『초기문집』 74쪽에서 발견하게 될 내용과는 다른 몇 가지가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청중 가운데서: 그러면 상자 안에 있는 이것들이 원본들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이 상자 안에 있는 이것들은 이 원문 기사에서 마지막 다섯 문단이며, 이 상자가 그것들을 둘러싸고 있다. 이 다섯 문단이 결국 『초기문집』 74쪽에 실리게 된다.

그러나 이것이 언제 인쇄되었으며, 언제 기록되었는가? 1850년 11월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다섯 문단에서 변경될 것들을 굵은 글씨로 표시해 두었다. 이것에는 변형이 일어날 것이다. 이는 매우 가까운 장래인 1851년에 『A Sketch of the Christian Experience and Views of Ellen G. White』라는 책이 인쇄될 것이며, 그들이 이 문단들을 가져다가 『A Sketch of the Christian Experience and Views of Ellen G. White』에 실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1850년 11월, Review and Herald의 기사]부터 『A Sketch of the Christian Experience and Views of Ellen G. White』에 이르기까지, 이 다섯 문단에는 몇 가지 사소한 편집상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리고 1851년의 『A Sketch of the Christian Experience and Views of Ellen G. White』에서 1882년의 『Early Writings』에 이르기까지, 또 몇 가지 편집상의 변화가 있었으며, 바로 그 편집상의 변화들이 『Early Writings』 74페이지를 난해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에서 결론을 이루는 이 다섯 문단 가운데 첫째 문단의 “9월 23일, 주께서 내게 보여 주셨다...”라는 부분은 변경될 것이다.

다음 문단들에서 “Then I saw . . .”, “Then I saw . . .”, “The Lord showed me . . .”, 그리고 “Then I was pointed to . . .”라는 표현들은 약간의 조정을 받는다.

열세 단락에 제시된 열 가지 주요 진리

그러나 내가 여러분이 원문 기사에 있는 이 열세 개의 문단에서 보기를 바라는 것은, 그녀가 열 가지 주요한 사항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이제 나는 왜 이것들을 굵은 글씨로 표시해 두었는지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그 내용들이 변경될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실 수 있다면,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 열세 문단에서 그녀는 이것을 보여 받았고 . . . , 이것을 보여 받았고 . . . , 이것을 보여 받았고 . . . , 이것을 보여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한 가지를 보여 받았을 때, 그것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한 후에는, 방금 보여 받은 것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어떤 다른 것을 다시 보여 받습니다. “나는 이것을 보여 받았고 . . . ; 나는 이것을 보여 받았고 . . . ; 나는 이것을 보여 받았고”

당신은 직접 나를 검토해 보고 그것을 스스로 읽어 볼 수 있지만, 이 열세 단락 가운데 그녀에게 열 가지 주요 진리가 제시되었다.

그녀가 보여짐을 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헌물에 대하여, 병든 자를 위한 기도에 대하여, 성찬 예식에 대하여, 천년기와 연관된 마지막 일곱 재앙에 대하여, 새로운 빛에 대하여, 1844년 이후의 모임에 대하여, 출판 사업에 대하여, 1843년 도표에 대하여, "Daily"에 대하여, 시험으로서의 "time"에 대하여, 그리고 예루살렘으로의 순례에 대하여 보여짐을 받았다. 그리고 이것을 주의 깊게 읽어 보면, 이것은 사상의 흐름이 아니다. 이것은 매우 분명하게 "나는 이것을 보여짐을 받았다"는 형식이며, 그녀는 자신이 보여짐을 받은 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그녀는 반드시 서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은 어떤 것을 보여짐을 받았다. 당신은 그것을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문단들을 함께 끌어모으기 시작할 때, 그녀가 실제로는 말하지 않은 어떤 것을 그녀가 말하고 있는 듯한 사상을 만들어 내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50년 11월 1일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1850년 11월의 글에서 다루고 있는 다섯 문단 가운데 첫 번째 문단에 주목하십시오.

9월 23일, 주께서 당신의 백성의 남은 자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두 번째로 그의 손을 펴셨으며, 이 모으는 때에 노력이 배가되어야 함을 내게 보여 주셨다. 흠어지는 때에 이스라엘은 맞아 상하고 찢겼으나, 이제 모으는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고치시고 싸매어 주실 것이다. 흠어지는 때에는 진리를 전파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이 거의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였고, 거의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모으시기 위하여 그의 손을 드신 모으는 때에는 진리를 전파하려는 노력이 의도된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모두가 그 일에 연합하여 열성을 내야 한다. 나는 지금의 모으는 때에 우리를 다스릴 본보기로 흠어지는 때를 언급하는 것이 누구에게든 수치스러운 일임을 보았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때 하신 것 이상을 지금 우리를 위하여 행하지 않으신다면, 이스라엘은 결코 모여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진리가 설교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인쇄물로 출판되는 것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그 단락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말한다. "진리가 설교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쇄물로 출판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좋다. 이 사상은 이제 내려놓으려 한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다섯 문단 가운데 둘째 문단에서, "주께서 내게 보이셨다"라고 한 부분을, 내가 밑줄 그어 놓은 것을 여러분은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1843년 도표가 그분의 손에 의해 인도되었으며, 그 어떤 부분도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주셨다. 또한 그 숫자들은 그분이 원하신 그대로였다는 것도 보여 주셨다. 그리고 그분의 손이 그 숫자들 가운데 몇몇의 오류를 덮어 감추고 계셨으므로, 그분의 손이 거두어질 때까지는 아무도 그것을 볼 수 없었다."

내가 이 페이지 상단의 이 네 문단에서 무엇이든 밑줄을 그어 놓은 이유는, 그것이 1851년에 출판된 『A Sketch of the Christian Experience and Views of Ellen G. White』에 재인쇄될 때 편집상의 변경을 거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좋습니다. "주께서 내게 보이셨다"는 문구는 변경될 것이며, "그의 손으로"도 변경될 것이고, "그것의 어떤 부분도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도 변경될 것입니다.

그 다음 같은 쪽의 다음 굵은 글씨 단락[넷째 단락]에는 이렇게 말한다,

—“주께서 나에게 보여 주시기를, 1844년 이래로 때는 시험이 아니었으며, 때는 다시는 결코 시험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다.”—

“주께서 내게 보여 주셨다”는 표현은 바뀌게 될 것이다. 이듬해 그들이 «A Sketch of the Christian Experience and Views of Ellen G. White»에서 하게 될 일은, 그 한 문장으로 된 단락을 가져다가 앞의 단락과 결합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한 단락으로 만들 것이다.

그러나 또한, 어떤 단어나 여러 단어가 굵은 글씨로 되어 있다면, 거기에는 다른 형태의 변경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뜻으로 말하는지 예를 하나 들어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문단에는 이렇게 말한다,

—그때 나는 ‘매일’에 관하여 보았는데, ‘희생제사’라는 말은 사람의 지혜로 덧붙여진 것이며 본문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과, 주께서 심판의 때를 외친 사람들에게 그것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주셨다는 것이었다. 1844년 이전, 연합이 존재하던 때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매일’에 대한 올바른 견해 위에 하나가 되어 있었으나, 1844년 이후에는 혼란 가운데 다른 견해들이 받아들여졌고, 그 결과 어둠과 혼란이 뒤따랐다.—

그 다음 같은 쪽의 다음 굵은 글씨 단락[넷째 단락]에는 이렇게 말한다,

“주께서 내게 1844년 이래로 때는 시험이 아니었으며, 또한 때가 다시는 결코 시험이 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 주셨다.”—

“주께서 내게 보여 주셨다”고 하는 그것은 바뀌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이듬해에 Ellen G. White의 『A Sketch of the Christian Experience and Views』에서 하게 될 일은, 그 한 문장으로 된 단락을 가져다가 앞선 단락과 결합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하나의 단락으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주께서 내게 보여 주셨다”를 “또한 나는 보게 되었다”로 바꿀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들은 그 두 문단을 한 문단으로 만들 것이며, 1851년에 그것을 “또한 나는 보게 되었다”로 바꿀 것입니다.

—“그때 나는 어떤 이들이 큰 오류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는데, 곧 주께서 오시기 전에 성도들이 아직 옛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다. 그러한 견해는 셋째 천사의 기별 아래 있는 하나님의 현재의 사업으로부터 마음과 관심을 돌려놓도록 작용한다. 이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곳에 있게 될 것이며, 우리의 재물도 성도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기 위하여 다른 용도에서는 거두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이 이 큰 오류에 빠지도록 버려진 이유를 보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지난 여러 해 동안 빠져 있던 그들의 오류들을 고백하고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Review and Herald, 1850년 11월 1일.

그러나 『초기문집』에 이르면,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또한 나는 보여졌다”라는 말을 삭제합니다. 『초기문집』에서는 이 한 단락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1844년 이전에 연합이 존재하였을 때에는 거의 모두가 그 ‘상시제’에 대한 올바른

견해로 연합되어 있었으나, 1844년 이후에는 혼란 가운데 다른 견해들이 받아들여졌고, 그 결과 어둠과 혼란이 뒤따랐다.” 그들은 “또한 나는 보여졌다”라는 말을 삭제하였고, 다음 문장은 “1844년 이후로는 때가 시험이 되어 오지 않았다”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때가 시험이 아니라는 이 사상이 그녀에게 특별히 보여진 것들 가운데 하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은 이것이 거짓 견해가 혼란을 낳는다는, 그 ‘상시제’에 관한 그녀의 빛의 한 부분이었다고 믿게 됩니다.

그것은 원본이 아닙니다. 당신은 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다음 단계(제2단계)—1851년 『엘렌 G. 화잇의 그리스도인 경험과 견해 개요』

그 아래에는 1851년에 인쇄된 엘렌 G. 화잇의 『A Sketch of the Christian Experience and View』가 있으며, 또 일어난 변화들에 대한 세부 분석이 제시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매우, 매우 중대한 변화가 있다.

9월 23일, 주께서 나에게, 그분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두 번째로 그의 손을 펴셨음을 보이셨으며, 이 모이는 때에 노력은 배가되어야 함을 보이셨다. 흠어지는 때에는 이스라엘이 맞아 상하고 찢겼으나, 이제 모이는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고치시고 싸매실 것이다. 흠어지는 때에는 진리를 전파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이 거의 효력이 없었고, 거의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였으나, 모이는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모으시려고 손을 드셨으므로, 진리를 전파하려는 노력은 의도된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이 일에 연합하고 열심을 내야 한다. 나는, 지금 이 모이는 때에 우리를 다스릴 본보기로서 누구든지 흠어지는 때를 언급하는 것은 잘못임을 보았다. 이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그때 하셨던 것 이상으로 행하지 않으신다면, 이스라엘은 결코 모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삭제됨: 진리가 설교로 전파되어야 하는 것만큼이나 정기 간행물로 출판되어야 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문단 통합] 나는 [이전에는—“주께서 내게 보이셨다”] 1843년 도표가 주의 손에 의해 지도되었으며, [이전에는—“그의 손에 의해”] 그것은 변경되어서는 안 되고, [이전에는—“그 어떤 부분도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 그 숫자들은 그분이 원하신 그대로였음을 보았다. 그분의 손이 그 위에 있어 어떤 숫자들 가운데 한 실수를 가리셨으므로, 그분의 손이 거두어질 때까지는 아무도 그것을 볼 수 없었다.

“그때 나는 ‘상시 드리는 것(Daily)’에 관하여 보았는데, ‘희생’이라는 말은 사람의 지혜로 덧붙여진 것이며 본문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과, 주께서 심판의 때를 선포하는 외침을 전한 자들에게 그것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주셨다는 것을 보았다. 1844년 이전에, 연합이 존재하던 때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그 ‘상시 드리는 것’에 대한 올바른 견해 안에서 연합되어 있었으나, 1844년 이후에는 혼란 가운데 다른 견해들이 받아들여졌고, 그 뒤를 따라 어둠과 혼란이 따랐다. [문단 합침] 나는 또한 [이전에는—“주께서 내게 보이셨다”] 1844년 이후로는 시간이 시험이 아니었으며, 시간이 다시는 결코 시험이 되지 않을 것임을 보았다.” Ellen G. White, A Sketch of the Christian Experience and Views of Ellen G. White, ExV 61–62.

셋째 천사의 기별과 연결되지 않은 시기

엘렌 화잇은 결국 『초기문집』에 실리게 된 환상과는 다른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여러 차례 환상을 보았으나, 어떤 환상에서는 그녀가 어떤 말을 들었고, 한 단락을 들은 뒤 그것을 기록하였다.

주께서 내게 보여 주신 바에 따르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반드시 나아가 흠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선포되어야 하며, 그것이 때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이는 때가 다시는 시험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어떤 이들이 때를 전파함으로써 생겨나는 거짓된 흥분에 사로잡히고 있는 것을 보았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때가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강한 것이었다. 나는 이 기별이 스스로의 기초 위에 설 수 있으며, 그것을 강하게 하는데 때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과, 그것이 큰 능력 가운데 나아가 그 일을 이루며, 의 가운데 단축될 것임을 보았다.” Ellen G. White, A Sketch of the Christian Experience and Views, ExV 48.

그녀가 거기서 무엇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결코 다시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시간과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 바로 그것이 아닌가?

아멘입니까? 제 말을 따라오고 계십니까?

이것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청중으로부터: (응답 없음.)

청중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의 경험과 견해의 개요.

엘렌 G. 화잇의 그리스도인 경험과 견해 개요, 48쪽, 48쪽.

좋습니다.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1850년 11월호 Review and Herald에서 유래한 그 구절은 A Sketch of the Christian Experience and Views of Ellen G. White의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노트에서 앞부분으로 돌아가 보면, A Sketch of the Christian Experience and Views of Ellen G. White 61쪽과 62쪽에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Ellen G. White의 A Sketch of the Christian Experience and Views에 기록된, 48쪽의 한 환상이 있고, 또 결국 Early Writings의 61쪽과 62쪽에 실리게 될 환상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13쪽 혹은 14쪽 정도 떨어져 있지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초기문집』에 관해서 그들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그들은 48쪽에 있는 이 문단을 취하여, 더 이상 시간이 시험이 아니라는 그녀의 진술 바로 뒤에 삽입할 것이다. 그들은 두 개의 이상을 하나로 함께 배치할 것이다.

내가 무슨 뜻으로 말하는지 이해하고 있습니까?

청중 속의 한 남자: 예.

내가 무슨 뜻으로 말하는지 이해하고 있습니까?

청중 가운데 지목된 개인: (확인.)

좋습니다. 이는 제가 당신에게서 더 적은 확증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단계(세 번째 단계)—1882년 초기 문집

좋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의 노트 6페이지로 돌아왔으며, 이제 당신은 다시 『초기문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9월 23일, . . . 나는 1843년 도표가 주님의 손에 의해 인도되었으며, 그것이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았다. 또한 그 수치들은 그분께서 원하신 그대로였으며, 그분의 손이 그 수치들 가운데 일부의 오류를 덮고 감추고 있었으므로, 그분의 손이 거두어질 때까지는 아무도 그것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매일’(다니엘 8:12)에 관하여 보았는데, ‘제사’라는 말은 사람의 지혜로 덧붙여진 것이며 본문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과, 주께서 심판의 때에 대한 외침을 전한 자들에게 그것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주셨다는 것을 보았다. 1844년 이전에는 연합이 존재하였을 때 거의 모든 이가 ‘매일’에 대한 올바른 견해 위에 하나로 연합하였으나, 1844년 이후의 혼란 속에서는 다른 견해들이 받아들여졌고, 그 결과 어둠과 혼란이 뒤따랐다. 1844년 이후로는 때가 더 이상 시금석이 되지 않았으며, 다시는 결코 시금석이 되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내게 보여 주신 바에 따르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나아가 흠어진 주의 자녀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나는 어떤 이들이 때를 전파함으로써 생겨나는 거짓된 흥분을 얻고 있음을 보았다. 그러나 셋째 천사의 기별은 시간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강하다. 나는 이 기별이 그 자체의 기초 위에 설 수 있으며, 그것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시간이 필요하지 않음을 보았다. 또한 그것은 큰 권능으로 나아가 그 일을 이룰 것이며, 의 가운데서 단축될 것임을 보았다.

“그 후 나는, 옛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자기들의 의무라고 믿는 큰 오류 가운데 있는 어떤 이들을 보게 되었다 . . .” 『초기문집』, 74-76.

그리고 이것이 굵은 글씨로 된 이유는, 바로 여기 이 문단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 . 1844년 이전, 연합이 존재하였을 때에는 거의 모든 이가 그 ‘매일’에 대한 올바른 견해 안에서 연합되어 있었다. 그러나 1844년 이후의 혼란 가운데서는 다른 견해들이 받아들여졌고, 그 결과 흑암과 혼란이 뒤따랐다. 1844년 이후로는 시간이 시금석이 되어 오지 않았으며, 다시는 시금석이 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은 그녀가 이 이상에 대한 최초의 기록에서 원래 “나는 1844년 이후로는 시간이 시금석이 되지 않았음을 보았다”라고 말했으며, 그것이 다른 문단이었던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매일’에 관하여 보여진 것과, 시간이 시금석이 되는 것에 관하여 자신에게 보여진 것 사이에 구별이 있음을 분명히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과 시간을 연결시키는 일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다음 문단은 원래의 이상 속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Life Sketches』 61, 62쪽이 아니라 48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1882년에 이르러 『초기문집』에 오면, 그들은 그것들을 함께 엮어 놓았다. 그러므로 1930년대에 이르러 재림교회 안에서 깊은 흑암 속으로 나아가게 될 때, 윌리 화잇은 말하기를, 당신이 “매일”을 연구할 때에는 반드시 그것을 시간의 문맥 속에서 연구해야 한다고 하였다—“미안하지만, 윌리, 당신의 책임은 예언의 신의 정확한 역사적 기록을 제시하는 자가 되는 것이었다. 당신은 예언의 신을 무너뜨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었다. 그런데 당신은 『초기문집』 75쪽을 제시하면서 원자료들을 무시하였고, 그

원자료들은 『초기문집』 74쪽에서 '매일'은 반드시 시간의 문맥 속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논증을 당신이 끌어올렸을 때, 그것이 절대적으로 사실이 아님을 말하고 있다."—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것은 예언의 신의 기록으로는 입증될 수 없다. 그것은 그 시대의 역사로도 입증될 수 없다.

좋습니다. 첫째 요점에서, 화잇 자매는 『초기 문집』 74쪽에서 "매일"에 대한 올바른 견해가 있다고 말한다. 후대에 역사 속에서 강요된 주된 주장은, 『초기 문집』 74쪽의 그 구절을 연구할 때 그것을 시기 설정의 문맥 속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주장은 허구이며 정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오직 '그 매일'에 대한 올바른 견해가 있다는 입장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단락에서 한 가지 생각을 더 다루고자 합니다.

그것은 "9월 23일에 주께서 내게 보여 주셨다 . . ."라고 말한다. 9월 23일, 어느 때인가? 1850년이다. "1850년 9월 23일에 주께서 내게 보여 주셨다."

그분은 그녀에게 무엇을 보여 주셨는가?

그분께서 그녀에게 보여 주신 것들 가운데 하나는, 1844년 이래로 '매일'에 대한 다른 견해들이 받아들여져 왔다는 것이었다.

"1850년 9월 23일에 주께서 내게 보여 주셨다 . . . 1844년 이전에 연합이 존재하였을 때에는 거의 모든 이들이 '상시 제사'에 관한 올바른 견해 안에서 연합되어 있었다. 그러나 1844년 이후에는, 혼란 가운데서 다른 견해들이 받아들여졌고, 그 결과 어둠과 혼란이 뒤따랐다. The Review and Herald, 1850년 11월."

1850년 3월 「매일」은 지상 성소이다

그러므로 6쪽 하단에는 1850년 3월호 Review and Herald에서 발췌한 한 단락이 있으며, 그것은 David Arnold의 글이다.

"그[다니엘]는 또한 동일한 압제하는 세력이 —왕들의 왕자를 대적하여 일어서는 것—을 본다." 이로써 시내산에서 제정되어 그 씨가 오실 때까지 날마다 준수되도록 한 모든 일상적 희생제사의 합법성은 끝나게 되었다. 여기서 실체이시며 위대한 예표적 희생제물이신 그리스도께서 로마 군병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다. 이와 같이 로마에 의해 —매일 드리는 제사가 제거되었고— 그의 성소의 처소가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 무너뜨려졌는데, 그는 예루살렘 성과 —그 성소—를 포함하고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였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예언적 선언의 성취가 시작되었다.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며 모든 민족에게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누가복음 21:24. David Arnold, Review and Herald, March 1850, Volume 1, Number 8.

이 글에서 David Arnold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서기 70년에 이교 로마에 의해 제거된 예루살렘의 유대인 성소를 나타낸다고 가르친다.

1850년 9월 「매일」은 그리스도의 성소 봉사이다

그 후 1850년 9월, 바로 그해에—그런데 1850년에 『Review and Herald』의 편집자는 누구입니까? 그의 이름은 제임스 화이트입니다.

그러므로 제임스 화이트는 1850년 9월에, 매일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성소 봉사를 나타낸다고 가르치는 크로지어의 한 논문을 출판하였다.

이제 제임스 화이트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가르치지 않지만,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와 같은 추론을 끌어내어 그것이 그가 가르치는 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것을 말하는가? 나는 그의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850년 9월에 화이트 자매는, 1844년 이래 '매일'에 대한 다른 견해들이 어둠 가운데 받아들여졌고 그 결과 혼란이 뒤따랐다고 말합니다.

이 두 견해[Arnold와 Crosier의 견해]는 '매일'이 이교주의라는 개척자들의 견해가 아니다.

그리고 7쪽에는 크로지어의 논문에서 발췌한 두 단락이 있는데, 거기서 그는 '매일'이 그리스도의 성소 봉사 직무라고 추론하고 있다.

“—그의 성소의 처소가 헐려 버렸으며;” 다니엘 8:11. 이 무너뜨림은 로마 세력의 시대에, 또한 그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이 본문의 성소는 땅도 아니고 팔레스타인도 아니었다. 전자는 타락 때에, 곧 이 구절의 사건보다 4,000년이 훨씬 이전에 헐려 버렸고, 후자는 포로 때에, 곧 그보다 700년이 넘게 앞서 헐려 버렸으며, 그 어느 것도 로마의 작용에 의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내던져진 성소는 로마가 스스로를 높여 대적한 그분의 것이니, 곧 군대의 주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바울은 그분의 성소가 하늘에 있다고 가르친다. 다시, 다니엘 11:30-31, —이는 깃딤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므로 그가 근심하고 돌아가서 거룩한 언약(기독교)을 대적하여 분노할 것이며(징계하는 막대기), 또 그리하고 돌아와서 거룩한 언약을 버린 자들(제사장들과 감독들)과 뜻을 같이할 것이며, 군대(시민적 세력과 종교적 세력)는 그의 편에 설 것이요, 그들(로마와 거룩한 언약을 버린 자들)이 그 힘의 성소를 더럽힐 것이라.’ 로마와 기독교의 사도들이 함께 더럽힌 이것은 무엇이었는가? 이 결탁은 —거룩한 언약'을 대적하여 형성되었고, 그들이 더럽힌 것은 바로 그 언약의 성소였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도 더럽힐 수 있었다. 예레미야 34:16; 에스겔 20; 말라기 1:7. 이것은 곧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신성모독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정치적-종교적' 짐승은 성소를 더럽혔고(요한계시록 13:6), 그것을 하늘에 있는 그 자리에서 내던졌다(시편 102:19; 예레미야 17:12; 히브리서 8:1-2). 그들은 로마를 거룩한 성이라 부르고(요한계시록 21:2), 거기에 교황을 —주 하나님 교황', —거룩하신 아버지', —교회의 머리' 등의 칭호와 함께 앉혔으며, 거기서 그 위조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는 예수께서 실제로 그분의 성소에서 행하시는 일을 행한다고 공언한다. 데살로니가후서 2:1-8. 성소는 발아래 짓밟혀 왔으니(다니엘 8:13),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되신 것과 같은 것이다. (히브리서 10:29.)” O. R. L. Crosier, —성소', Review and Herald, 1850년 9월.

제임스 화이트의 논리

제임스 화이트가 더 잘 알고 있었다면 왜 이 글을 인쇄하였겠는가? 그 이유는 당신의 노트에 있는 “제임스 화이트의 논리” 때문이다.

대실망 이후에 처음으로 출판된 것은 『작은 무리에게 보내는 말씀』이라 불리며, 그 출판물의 저자는 제임스 화이트, 엘렌 화이트, 그리고 조셉 베이츠, 이 세 사람이었다. 1844년 10월 22일 이후 그 길을 계속 따라가던 그 사람들에 의해 처음으로 출판된 것은 바로 이 글이었다. 그리고 이 글에서 화이트 자매는 크로지어의 견해를 지지하는데, 그것은 그의 '상시 드러지는 것'에 대한 견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옮겨 가셨다는 그의 견해였다.

주목하라, 이것은 화이트 자매이다. 이것이 제임스 화이트가 기꺼이 크로지어의 글을 인쇄하려 했던 이유이다. 이렇게 말한다,

"나는 2300주야의 끝에 정결하게 되어야 할 성소가, 그리스도께서 봉사자로 계시는 새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믿는다."—이는 엘렌 화이트의 말이다—"주께서 1년이 넘기 전에 환상 가운데 내게 보여 주시기를, 크로지어 형제가 성소의 정결에 관하여 등에서 참된 빛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 1846년 2월 7일자 Day-Star, Extra에 우리에게 제시한 견해를 크로지어 형제가 기록하여 내는 것이 주의 뜻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 Extra를 모든 성도에게 추천할 권한을 주께로부터 충분히 받았음을 느낀다."

"이 글들이 그대와, 또한 그것을 읽게 될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이 되기를 나는 기도한다." 『작은 무리에게 보내는 말씀』, 1847년 5월 12일.

그러므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재림교 내의 일부 현대 역사가들은 "저기를 보라. 엘렌 화이트가 크로지어의 논문 전체에 전면적인 지지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매일 드리는 것(the Daily)'이 그리스도의 성소 봉사라는 크로지어의 주장은 반드시 참이어야 한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말할 때, 그들은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크로지어의 논문에는 여덟 개의 절이 있었고, 맨 처음부터 재림교인들은 그 가운데 네 절이 완전한 흑암임을 이해하였으며, 그것들은 재림교 안에서 결코, 결코, 결코 다시 인쇄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그 글에서 그가 취한 입장들 가운데 하나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천 년의 평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재림교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으며, 또한 결코 그렇게 믿어 온 적도 없다. 그러한 이해는 윌리엄 밀러가 거부한 이해이며, 바로 그 점이 윌리엄 밀러를 진리를 이해하는 올바른 길 위에 두는 것이다. 그 가르침은 밀러주의적 이해와 정면으로 반대되는 가르침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므로 크로지어가 이 여덟 부분으로 된 글을 내놓았을 때, 그들은 이 가운데 네 부분은 애초부터 재인쇄할 수 없다는 것을 곧바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제임스 화이트는 크로지어가 'Daily'를 그리스도의 성소 봉사로 추론하는 부분은 인쇄한다. 그러나 그는 그 네 부분만 다시 인쇄하려 할 뿐이다. 그는 나머지 네 부분은 다시 인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제임스 화이트가 크로지어의 그 네 부분을 다시 인쇄하려면, 그것을 두 호에 나누어 실어야 한다. 그는 1850년 9월에 그것을 두 차례 인쇄해야 했다.

1850년 9월 그의 『리뷰 앤드 헤럴드』에는 지면이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그는 그리스도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옮겨 가시는 일에 관한 크로지어의 글을 전부 실을 수 있도록 1850년 9월에 『리뷰 앤드 헤럴드』를 두 차례 발행하였다.

이제 여러분은 Gerard Damsteegt를 통해, 재림교인들이 Crosier의 글들 가운데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 그것들이 재인쇄될 수 없다는 사실을 언제나 알고 있었다는 역사적 평가를 그가 제시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그녀[엘렌 하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주께서 일 년이 훨씬 더 전에 환상 가운데 내게 보여 주셨는데, 브라더 크로지어가 성소의 정결 등에 관하여 참된 빛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브라더 C.가 1846년 2월 7일자 Day Star Extra에서 우리에게 제시한 견해를 기록하여 내는 것이 그분의 뜻이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그 Extra를 모든 성도에게 추천할 충분한 권위를 받았다고 느낀다’(Letter. E. G. White to Curtis, Word to the Little Flock, 12).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은 통상 이 진술을, 크로지어의 제시들에 오류가 전혀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주요한 예표론적 논증은 옳았다는 뜻으로 해석해 왔다. 그 글의 재인쇄본들은 그들이 부정확하다고 여긴 측면들은 생략하였다.” P. Gerard Damsteegt, Foundations of the Seventh-day Adventist Message and Mission, 125.

그의 완전한 문서를 결코 재인쇄할 수 없었다

이제 다음 쪽에서 여러분은 W. A. 스파이서가 바로 그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그들은 언제나 크로지어의 논문들 안에 오류가 있음을 알고 있었으며, 그 네 부분은 결코 다시 인쇄하지 않았습니다.

슬프게도, 젊은 크로지어는 안식일 진리의 빛 가운데 아주 짧은 기간만 걸었습니다. 그는 후에 자신이 확립하는 데 일조했던 성소 교훈을 부인하였습니다. 우리 초기의 형제들은 그의 성소 해설을 그들의 초기 정기간행물에 여러 차례 재인쇄하였지만, 그의 완전한 문서는 결코 재인쇄할 수 없었습니다. 그 문서에서 그는 성소 해설에 더하여, 장차 올 시대에 관한 몇몇 사상들, 곧 재림 때 이 지상에 영화로운 시대가 있을 것이라는 일시적인 천년왕국설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형제들이 언제나 생략하였습니다. 이 장차 올 시대에 관한 교리들은 그 당시 도처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 교리는 분명한 재림 기별과 결코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오류의 누룩이 젊은이들을 안식일과 성소의 진리에서 떠나가게 하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그는 곧 우리 초기 운동에 대한 쓰라린 반대자로 돌아섰습니다.” W. A. Spicer, Review and Herald, December 14, 1939

요점은, 오늘날 『A Word to the Little Flock』에 실린 크로지어의 글에 대한 화잇 자매의 지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하이디 하이키스와 같은 사람들, 곧 매일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성소 봉사라고 하는 어리석은 그의 책을 낸 하이디 하이키스 같은 사람들이다. 이것이 그의 논거들 가운데 하나이다.

이와 같이 하는 사람들은 역사적 사실들을 무시하고 있다. 그들은 결코 크로지어의 모든 논문을 다시 인쇄할 수 없었다. 그리고 『A Word to the Little Flock』에서 나타난 엘렌 화잇의 지지를 크로지어의 입장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지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곧 재림신자들이 천 년간의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어리석은 논증이다.

그것은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며, 사람들을 속이고 혼란과 흑암을 조성하기 위해 행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이미 세상을 떠난 Spicer와 아직 살아 있는 Damsteegt라는 두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하건대, Spicer든 Damsteegt든, 그들 가운데 누구도 내가 제시하는 바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서로 대립적인 두 역사학자가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Ellen White가 Crosier의 논문을 지지한 일을 두고 그 안의 모든 것이 완전하였다는 뜻으로 해석할 만한 정당성은 전혀 없습니다.

재림교 평론—제1권, 뉴욕주 오번, 제3호

재림 평론—제1권, 뉴욕주 오번, 제4호

재림 평론—제1권, 뉴욕주 오번, 특별호

제임스 화이트가 1850년 9월호 『The Review and Herald』, 제1권 제3호에 크로지어의 논문을 인쇄하기 시작했을 때,

그러나 그는 그 모든 내용을 제1권 제3호에 다 실을 수 없었으므로, 그 글을 『The Review and Herald』 제1권 제4호에서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그가 이것을 언제 했는가? 1850년 9월이었다.

그렇다면 1850년 9월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화이트 자매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한 이상을 받았다. “1850년 9월 23일에 주께서 내게 보여 주셨다 1844년 이전에 연합이 존재하였을 때에는 거의 모두가 ‘매일’에 관한 올바른 견해 안에서 연합되어 있었다. 그러나 1844년 이후에는 혼란 가운데 다른 견해들이 받아들여졌고, 그 결과 흑암과 혼란이 뒤따랐다. The Review and Herald, November 1850.”

그녀의 남편은 누구였는가? 그는 『The Review and Herald』의 편집인이었다.

그러면 그의 아내가 “제임스, 내가 방금 주님께 들은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매일’에 관하여 초기 개척자들의 이해, 곧 그것이 이교주의라는 견해에 반대되는 견해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어둠과 혼란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이에요.”라고 말했을 때, 그는 무엇을 했는가?

그러면 제임스 화이트는 무엇을 하였는가? 1850년 9월에 그는 또 하나의 『Review and Herald』를 인쇄하였는데, 한 달에 세 호를 발행한 것이었다. 이것은 제1권 특별판이라고 불린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하였는가? 그는 크로지어의 논문을 다시 인쇄하면서, 크로지어가 매일의 제사에 관하여 말한 부분을 삭제하였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제임스 화이트와 엘렌 화이트가 매일에 관한 크로지어의 견해가 잘못되었으며 그것이 흑암과 혼란을 가져왔음을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그러면 '매일'에 관한 크로지어의 견해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소 봉사라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초기문집』 74에서 그녀가 "9월 23일에 주께서 밀러주의자들이 매일에 대하여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음을 내게 보여 주셨다"고 말할 때, 역사적 증거는 밀러주의자들이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제 형제자매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이 무엇입니까? 1850년 9월, 화잇 자매는 1844년 이후 "매일"에 관한 다른 견해들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50년 5월, 아놀드는 "매일"을 유대인의 성소로 제시합니다. 1850년 9월, 크로지어의 논문 1부(총 2부)가 출판되며, 그 안에는 "매일"을 그리스도의 성소 봉사로 제시하는 그의 견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850년 9월, 크로지어의 논문 2부(총 2부)가 출판됩니다. 1850년 9월, 크로지어의 논문이 재인쇄되지만, "매일"에 관한 그의 견해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1850년 도표가 제작된 바로 그 해를 본다. 그러면 이 도표는 매일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교의 지배, 곧 제거된 매일. 단. 11:31 508."

엘렌 화잇은 심판의 때의 외침을 전한 자들이 이해하고 있던 "상례적인 것"(the Daily)의 입장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고 있었다. 그녀가 그들이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할 때, 그녀는 그 올바른 견해가 곧 그것이 이교적 지배권이 제거되는 것을 나타내며, "상례적인 것"은 이교주의를 대표한다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 해, 곧 1850년에, 역사적 기록은 그녀가, 그리고 그녀의 남편이, '매일 드리는 것(the Daily)'이 그리스도의 성소 봉사를 나타낸다는 가르침을 거부하였음을 증명한다. 이것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성경연구소(Biblical Research Institute)가 지지하는 가르침이다. 또한 Heartland와 Steps to Life와 같은 자립 선교 기관들이 지지하는 가르침이기도 하다. 그것은 흑암과 혼란을 가져오는 가르침이다.

이제 1850년 도표에 관하여 이것을 주목하라. 이는 1850년 11월의 일이다. 바로 이 달에 그녀는 한 이상을 받았고, 그것을 기록하였는데, 그것은 결국 1851년의 전개 과정을 거쳐 1882년에 『초기 문집』에 수록되기에 이른다. 바로 이 달, 곧 1850년 11월에 그러하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월요일에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니콜스 형제와 그 가족이 살고 있는 도체스터로 돌아왔다."—

바로 여기[1850년 도표의 오른쪽 위 모서리를 가리키며], "매사추세츠 주 도체스터, 오티스 니콜스 발행." 좋습니까? 그녀는 이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은 이것, 이 도표를 보고 있습니까?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매우 흥미로운 이상을 보여 주셨는데, 그 대부분을 여러분이 그 지면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표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함을 내게 보여 주셨습니다. 나는 그것이 필요하며, 표들 위에 분명하게 제시된 진리가 큰 효력을 발휘하여 영혼들로 하여금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리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Manuscript Releases, number 15, 210 November, 1850.

그녀는 도체스터에 있는 니콜스의 집에서 이상을 보았는데—그 모든 것이 이 도표 위에 있으며—이르시기를, “너는 도표를 만들어야 한다.” 하셨다.

그렇다면 그녀는 그 도표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녀는 그것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하박국 2장으로 가 보라. “나는 도표를 발행해야 할 필요를 보았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하게 되는가? 그것은 필요하였다. “이는 진리가 판들 위에 분명하게 제시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하박국 2장 2절은 말한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 . . .” 그녀는 매사추세츠 주 도체스터에서 인쇄된 이 오티스 니콜스의 1850년 도표가 하박국의 성취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녀가 『각 시대의 대쟁투』에서 1843년 도표가 하박국의 성취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좋습니다, 이것이 보이십니까? 그녀가 이 환상을 받은 때가 언제인지 보이십니까? 바로 이 일이 진행되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9월 23일, 주께서 내게 보여 주셨다 . . . 곧 그리스도의 성소 봉사로서의 매일에 관한 가르침은 어둠과 혼란을 가져온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은 즉시 그 기사를 다시 인쇄하면서 그 두 단락을 삭제하였습니다. 그것은 1931년에 윌리 화이트가 다시 인쇄할 때까지 재림교회 안에서 결코 다시 인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였을 때, 그가 인쇄한 바로 그 소책자 안에는 얼마간의 거짓 증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입증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바로 이 동일한 시기에 관한 다소 긴 인용문 하나를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1850년 11월 27일의 것입니다.

나는 한동안 그대에게 편지 쓰는 일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아라벨라 자매의 친절하고도 반가운 편지를 받은 뒤 여러 주 동안은 편지를 쓸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 편지에 대한 답장을 2주 안에 보내 달라는 그의 요청에 응했을 것입니다. 나는 그 편지를 매우 기쁘게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편지에 깊은 관심을 가졌으며, 내가 답장을 늦춘 것이 그대가 이것을 읽는 즉시 곧바로 회답하는 일을 막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내가 이처럼 오래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제임스와 나의 건강은 이제 매우 좋습니다. 우리의 거처는 파리에 있으며, Andrews 형제의 집으로, 우체국과 인쇄소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얼마 동안 머무를 것입니다. 이 가족은 매우 친절하지만, 상당히 가난합니다. 이곳에서는 그들이 가진 것이 있는 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 줍니다. 우리는 이곳에 머무는 동안 그들에게 어떤 비용 부담도 지우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와 사랑하는 고렘 자매를 몹시 보고 싶습니다.

탐섬에서 열린 우리의 집회는 깊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 스물여덟 명이 참석하였고, 모두가 그 모임에 참여하였다.

일요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고 급한 바람같이 우리 위에 임하였다. 모두가 일어나 발로 서서 큰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집의 기초를 놓을 때와 같은 광경이었다. 우는 소리와 외치는 소리를 분간할 수 없었다. 그것은 승리의

시간이었다. 모두가 힘을 얻고 새롭게 되었다. 나는 전에 이처럼 강력한 시간을 본 적이 없었다.

우리의 다음 집회는 Fairhaven에서 있었다. Bates 형제와 그의 아내도 참석하였다. 그것은 매우 좋은 집회였다. 우리가 Nichols 형제의 집으로 돌아온 후, 주께서 내게 이상을 주시고 진리가 판들 위에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함을 보여 주셨으며, 앞의 두 기별이 판들 위에 분명하게 제시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세 천사의 기별로 인하여 진리를 택하게 될 것임을 보여 주셨다.”—

그것은 바로 여기 아래쪽[1850년 도표의 왼쪽 아래 모서리를 가리키며]에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녀가 말하고 있는 그것들은 이 도표 위에 있습니다.

“또한 나는 그 전도자들이 가는 것만큼이나 그 간행물이 출판되는 것도 필요함을 보았다. 이는 전도자들에게는 그들과 함께 가지고 다니며, 현대 진리를 담아 듣는 자들의 손에 쥐여 줄 간행물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그렇게 하면 그 진리가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간행물은 전도자들이 갈 수 없는 곳에도 갈 것이었다. 나는 또한 그 간행물에 나타나게 될 다른 것들도 보았다.

여러분은 모두 어떻게 지내십니까? 여러분은 모두 영생을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매우, 매우 보고 싶으며, 오래지 않아 보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준비의 때이며, 나는 우리 모두가 영원을 위하여 틀림없는 일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는 매우 짧아 보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든지 속히 해야 합니다.

11월 20일, 일주일 전, 헨리 니콜스 형제와 나는 톱섬으로 갔다. 목요일[11월 21일]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막 일어났을 때, 포이 형제의 아이들 가운데 하나가 들어와 그들의 어머니가 의식을 잃었다고 말했다. 우리는 서둘러 강을 건너 1마일을 가서 사랑하는 포이 자매가 임종 중에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나의 괴로움은 컸다. 그는 세 시와 네 시 사이까지 큰 고통 가운데 오래 지속되다가 마침내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그는 남편과 세 아이를 남겨 두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상실을 슬퍼하게 하였다.

금요일 아침[11월 22일]에 헨리 형제가 장례식에 참석하려고 제임스에게 면도를 받기 위해 파리에 왔다. 우리는 매우 엄숙하고도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주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영을 우리 위에 머물게 하셨다. 포이 자매의 마지막 날들은 분명히 그녀의 가장 영적이고 가장 좋은 날들이었다. 포이 형제에게는 그녀가 그리스도인으로 죽었다는 이 한 가지 위로가 있다. 그는 잘 견디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고난을 견딜 은혜를 주신다. 오, 모든 시련과 환난의 장면 가운데서도 붙들어 주는 하나님 안의 소망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좋은 소망,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 여러분의 소망을 위해 무엇을 내어주겠습니까?

믿음을 굳게 붙드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그분의 영원하신 팔을 의지하십시오. 그것은 결코 여러분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모든 환난 아래에서 여러분을 붙들어 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진리 안에서 점점 더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나라를 향하여 여러분의 길을 힘써 나아가십시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주일 전, 지난 안식일에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집회를 가졌습니다. 데드 리버에서 온 휴잇 형제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한 기별을 가지고 왔는데, 그 요지는 악인의 멸망과 죽은 자의 잠이 닫힌 문 안에 있는 가증한 것이라는 것과, 한 여자 이세벨 곧 여선지자가 그것을 들여왔다는 것이었으며, 그는 내가 바로 그 여자, 이세벨이라고 믿었습니다.”

알겠습니까? 휴잇 형제는 엘렌 화잇이 이세벨이며, 그녀가 세 가지 오류를 들여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그가 범했던 몇 가지 오류, 곧 1335일이 이미 끝났다는 점과 그의 수많은 오류에 대하여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거의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 그의 어둠이 집회 위에 드리워져 느껴졌고, 집회는 지루하게 끝어졌다.”—

이제 나는 여러분이 이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문단에 관하여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따라와 주기를 바라는 어떤 말을 하려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세상 끝에 시간 예언들을 다시 적용하는 재림교 내 사람들을 상대해 본 적이 있다면, 그들이 사용하는 인용문은 사실상 세 가지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그들은 많은 인용문을 사용하지만,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핵심적인 인용문은 세 가지입니다. 이것이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대목으로 가서, “우리는 그에게 과거의 몇몇 오류들을 말해 주었고”라고 한 뒤, 그녀가 “1335일은 끝났다”고 말한 것이 그의 오류들 가운데 하나였다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문법을 약간 비틀 수 있는 방식을 보십니까? “우리는 그에게 과거의 몇몇 오류들을 말해 주었다. 우리는 또한 1335일이 끝났다고 그에게 말했다.” 그러나 시한 설정자들은 우리가 그에게 과거의 몇몇 오류들을 말해 주었고, 그 오류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네가 1335일이 끝났다고 가르치는 것인데, 그것이 오류라는 뜻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어느 쪽으로든 비틀 수 있습니다.

내가 유진 프루잇과 처음으로 직접 대면하여 맞섰던 것은 오클라호마에서였는데, 그는 밀러파의 역사가 세상 끝에 반복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나는 그에게 예언의 신에 나오는 몇 가지 인용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제프, 당신도 알다시피 엘렌 화잇은 부주의한 저술가였소.”

그러자 내가 말하였다.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그는 이 인용문으로 갔습니다. 그는 이 인용문이 그녀가 부주의한 저자임을 증명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녀가, 만일 그들이 원한다면, 시기 설정자들이 이 인용문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음을 자신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와시타와 같은 어떤 곳이 그 학생들에게 엘렌 화잇은 부주의한 저술가라고 가르칠 만큼의 영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한 가지 문제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그녀가 부주의한 저술가인가?

—“나는 몇 마디 해야겠다고 느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섰고 약 오 분 만에 그 집회는 변화되었다. 모든 사람이 바로 그 순간 그것을 느꼈다. 모든 얼굴이 밝아졌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장소를 가득 채웠다. 휴잇 형제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울며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이상 중으로 이끌려 들어가 내가 기록할 수 없는 많은 것을 보았다.

그것은 휴잇 형제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고백하였고 티끌 가운데 낮아졌다. 그는 그 집회 이후로 줄곧 글을 써 오고 있으며, 지금도 같은 탁자에서 자기가 주장해 온 모든 오류를 철회하는 글을 쓰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계신다고 믿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면 그는 선한 일을 하도록 되어 있다.

사랑하는 고렘 자매에게 각별한 사랑을 전해 주십시오. 그 자매에게 강건하라고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녀와 함께하시며 그녀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많은 사랑을 전합니다. 나는 아이들이 즐움에 빠지지 않고 진리에 관심을 가지며, 그들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에 부지런하기를 바랍니다. 편지하십시오. 반드시 편지하십시오. 내가 해 온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편지하십시오.” Manuscript Releases, volume 16, 206–209. 1850년 11월 27일, 메인 주 파리에서 기록됨.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의 역사적 맥락은 무엇이며, 그녀는 이것을 어디에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녀는 1850년에 니콜스 형제의 집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주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분은 선구자들이 매일에 관하여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계시며, 그녀는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녀는 그리스도의 성소 봉사가 매일에 대한 거짓된 견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역사 속에서, 바로 이 역사 속에서—곧 단지 바로 이 역사와 단지 바로 그 해만이 아니라, 그 해의 바로 그 달에 그녀가 이상들을 받고 있으며, 매일 제사의 개혁자적 입장에 관한 이 진리를 분명히 하면서, 심판의 시간의 외침을 전한 자들이 매일 제사에 대하여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바로 같은 문단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1843년 도표가 주의 손에 의해 인도되었으며, 그것은 변경되어서는 안 되고, 심판의 시간의 외침을 전한 자들이 매일 제사에 대하여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 이 1843년 도표는 매일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것은 그것이 서기 508년에 제거되었으며, 1335년 후에는 1843년에 이르게 되므로, 그 1335일은 과거에 속한다고 말한다.

바로 그 달, 바로 그 해에, 그녀가 Dead River의 Brother Hewit에게 그것이 여전히 미래의 일이라고 말하리라고 당신은 상상할 수 있겠는가?

좋습니다. 이 시기를 정하는 자들, 이 시기를 정하는 자들, 그리고 화잇 자매가 부주의한 저술가라고 믿는 이 사람들에 관하여 말하자면, 역사는 이를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매일」과 관련하여, 엘렌 화잇이 1335일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기를 바랍니다.

엘렌 화잇은 다만 그 “Daily”가 이교주의라는 견해에 자신의 승인 입장을 찍은 것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것이 1843년에 끝난 1335년 예언의 시작점임을 이해하였으며, Dead River의 휴잇 형제를 상대로 공개적으로 그 입장을 옹호하였다. 이것이 보이는가?

그리고 바로 그 달에, 그녀는 그리스도의 성소 봉사가 상번제만으로는 오직 어둠과 혼란만을 가져온다고 말하고 있었으며, 그녀의 남편은 그 이상에 대한 응답으로 그 가르침을 Review and Herald에서 삭제하였다.

여기 여러분의 노트에, "1850 Chart"라고 적힌 곳에, 바로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50년 도표에서 왼쪽에서 세 번째 칸, 곧 서기 31년 십자가 위의 예수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을 가리킴]. 여러분의 노트에 이것을 적어 둘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떠나라 다니엘 11:31 508

그리고 그다음 여기 1843년 도표에는 [서기 31년 십자가 위의 예수님 아래, 가운데 기둥을 가리키며]:

날마다 드리는 제사의 제거. 단. 12:11, 12

좋습니다, 이것이 이 두 도표입니다.

화이트 자매는 이 사람들이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였고, 그것이 1843년에 끝나는 1335년 예언을 시작하게 하였음을 이해하였으며, 또한 그것이 508년에 이교 지배권이 제거된 것을 나타냄을 이해하였다.

이 두 도표에 대한 이 두 언급 아래에서, 여러분은 니콜스 형제의 시기에 관한 또 다른 인용문을 보게 되는데, 그녀는 다른 도표들을 만드는 사람들을 그 그림이 사탄적이라는 이유로 책망하고 있다. 반면에 그녀는 이 두 도표 위의 그림은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도표를 만드는 일이 전적으로 잘못되었음을 보았다. 그것은 로즈 형제로부터 시작되어 케이스 형제에 의해 계속 추진되었다. 천사들과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하여 도표들을 만들고 조잡하고 혐오스러운 형상들을 만드는 데 자금이 사용되었다. 나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불쾌하게 한다는 것을 보았다. 나는 니콜스 형제가 그 도표를 출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셨음을 보았다.—

이 1850년 도표의 출판에 누가 함께하셨는가? 하나님입니다!

—“나는 보았다. 무엇이 있었는가?”—“성경 안에 이 도표에 관한 예언이 있었다. 그리고 이 도표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라면, 그것이 한 사람에게 충분한 것이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하며, 또 어떤 사람이 더 큰 규모로 새 도표를 그려야 할 필요가 있었다면, 모든 사람에게도 그만큼 그것이 필요하다.”

나는 다른 도표를 바라는 형제 케이스 안에 안절부절못하고 불안하며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감정이 있음을 보았다. 나는 이 채색된 도표들이 회중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음을 보았다. 그것들은 집회 가운데 경박하고 천박한 조롱의 정신이 있게 하였다.—

이제 이것이 내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도표들이, 설명이 없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에 호의적인 인상을 준다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 도표들이,” 곧 복수형으로 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임을 보았다” 어떤 도표들이, 복수형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었는가? 이 두 도표[1843년 도표와 1850년 도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었다.

이 두 도표는 하박국 2장의 성취이다.

—“도표들에 나타난 천사들의 표현에는 가볍고 사랑스러우며 하늘에 속한 어떤 것이 있다. 마음은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미묘하게 하나님과 하늘로 이끌린다. 그러나 그 밖에 만들어진 다른 도표들은 마음에 혐오감을 일으키며, 마음으로 하여금 하늘보다 땅에 더 머물게 한다. 천사들을 나타내는 형상들은 하늘의 존재들보다 오히려 마귀들처럼 보인다. 나는 그 도표들이 여러 날과 여러 주 동안 Brother Case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그 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있었어야 했으며, 또한 성령의 은혜들과 진리에 대한 지식 안에서 자라가고 있었어야 하였다.

나는 도표들을 만들어 내는 일에 낭비된 자금이, 소책자 등을 출판하여 형제들 앞에 진리를 분명히 제시하는 일에 사용되었더라면, 많은 선을 이루고 영혼들을 구원하였을 것임을 보았다. 나는 도표 제작 사업이 마치 열병처럼 퍼져 나간 것을 보았다.

『Manuscript Releases』, no. 13, 359; 1853.

1290일과 1335일

나는 1858년 1월 28일 자 Review and Herald의 한 기사를 가지고 있다. 내가 그것을 너희의 주석에 넣어 둔 이유는, 1858년에도 그들이 여전히 ‘매일’을 이교주의라고 가르치고 있음을 너희가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의 참고 자료에 그것이 들어 있는데, 1850년 이후 8년이 지난 뒤에도 그들은 여전히 ‘매일’이 이교주의라고 이해하고 있다.

재림 교리가 근거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예언적 기간은 다니엘 12장의 1335일이며, 이것과 1290일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두 기간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제시된다:

“또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하여지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는 천이백구십 일이 있을 것이요, 기다려서 천삼백삼십오 일에 이르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러나 너는 마지막까지 가라. 이는 네가 실 것이요, 날들의 끝에 네 몫을 받기 위하여 서게 될 것임이라.” 다니엘 12:11-13.

즉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제기된다. 이 기간들의 기산점이 되는 사건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가? 그리고 그렇다면, 그것들이 언제 일어났는지도 알 수 있는가? 우리는 먼저 다음을 살핀다. 곧 “매일”(제사)와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sacrifice(제사)라는 단어가 이탤릭체로 되어 있음이 주목될 것인데, 이는 그것이 보충된 단어임을 나타낸다. 같은 사실은 다니엘서에서 이 말이 나오는 다른 경우들, 곧 11:31과 8:11-13에서도 확인될 것이다. 이제 이 후자의 장을 간략히 살펴보자. 13절에서는 두 가지 황폐하게 함이 제시되어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곧 매일의 (황폐하게 함)과 황폐하게 하는 범죄이다. 이 사실은 조시아 리치가 매우 분명하게 밝혀 놓았으므로, 우리는 그의 말을 인용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없을 것이다.*

“—‘매일의 제사’는 현재의 본문 번역일 뿐이나, 원문에는 제사와 같은 것은 전혀 없다. 이것은 모든 이가 인정하는 바이다. 그것은 번역자들이 거기에 덧붙인 주해, 곧 해석일 뿐이다. 올바른 독법은 ‘매일의 것과 황폐하게 하는 범죄’이다. 곧 ‘매일의 것’과 ‘범죄’가 ‘그리고’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매일의 황폐함’과 ‘황폐하게 하는 범죄’인 것이다. 그것들은 성소와 군대를 황폐하게 할 두 황폐하게 하는 세력이었다.”

이로부터 ‘매일’은, 오래되고 더욱 널리 퍼진 견해가 그것에 적용해 온 유대인의 예배와는 아무 관련이 있을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는 또한, 이 기간들을 문자적으로든 비유적으로든 그 예배를 폐하는 어떤 시점으로부터 산정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어떠한 주목할 만한 사건에도 전혀 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더욱 분명해진다.

그렇다면 상시적인 것과 가증한 것은 교회를 압박하도록 되어 있던 두 황폐하게 하는 세력인데, 우리는 이 세력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가? 이 점에 관하여 윌리엄 밀러의 추론 방법을 채택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와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계속 읽어 내려갔으나, [그 매일]이라는 말이 다니엘서 외에 쓰인 다른 경우는 전혀 찾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나는 [성구 사전의 도움으로]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말들을 취하였다. 곧, ‘제하여 버리다’; ‘그가 매일을 제하여 버릴 것이며’; ‘매일이 제하여진 때부터’; 등등이었다. 나는 계속 읽어 내려갔고, 이 본문에 대하여 아무런 빛도 얻지 못하리라고 생각하였다. 마침내 나는 데살로니가후서 2:7, 8에 이르렀다. 곧,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가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리고 그 때에 저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라.’ 등등. 내가 그 본문에 이르렀을 때, 오, 진리가 얼마나 분명하고 영광스럽게 나타났는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것이 곧 ‘그 매일’이다! 자, 이제 바울이 ‘지금 막는 자’ 곧 ‘억제하는 자’라고 한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죄의 사람’과 ‘불법한 자’는 교황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교황권이 드러나는 것을 막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곧 이교주의이다. 그렇다면 ‘그 매일’은 반드시 이교주의를 뜻하는 것이다.”+

우리는 Daniel 8에서, 숫염소 곧 헬라 제국을 계승한 작은 뿔이 그 ‘매일’을 제거한다는 것과, 알렉산더 왕국이 분열된 이후부터 2300일의 끝에 성소가 정결하게 될 때까지 나타나는 유일한 세력이 바로 그것임을 본다. 우리는 이 작은 뿔이 그 정당한 위치에서, Daniel의 다른 환상들에 나오는 넷째 왕국에 해당하는 하나의 통일체로서의 로마임을 이미 밝혔다. 이제 로마의 세력 안에서 이교주의로부터 교황주의로의 변화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은 사실이다. 앗수르 왕들의 시대부터 교황주의로 변형되기에 이르기까지, 이교주의는 ‘매일’이었으며, 혹은 Whiting 교수의 번역대로 하면 ‘그 계속되는’ 황폐하게 하는 것이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여호와의 대업을 대적하여 일어섰다. 그것은 그 제사장들과 그 제단들과 그 희생 제사들 안에서 여호와의 레위 제도적 예배 형태와 유사성을 지니고 있었으나, 레위 제도적 예배가 그 자리를 기독교적 예배 형태에 내어주게 되었을 때, 사탄도 그 사역을 성공적으로 대적하기 위하여 자기의 대적 방식 또한 바꾸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므로 이교주의의 신전들과 제단들과 형상들은 교황주의의 신성모독들 속으로 세례를 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예언에서 말하는 바, 매일의 것, 곧 이교주의는 성소를 가진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성소의 처소가 내던져지게 되어 있었다. 성소가 우상숭배와 이방 종교와 자주 결부되어, 그것들의 헌신과 예배의 장소로 나타난다는 사실은 다음 성경들로 분명하다: Isaiah 16:12; Amos 7:9, 13, margin. Ezekiel 28:18. Daniel 8의 매일의 것의 성소에 관하여, 우리는 다음의 인용을 Apollos Hale로부터 제시한다:”

“—이교의 ‘성소’란 무엇을 뜻할 수 있는가? 이교와 온갖 종류의 오류에도 진리와 마찬가지로 그것들의 성소가 있다. 그것들은 그 섬김을 위하여 바쳐진 신전들 혹은 피난처들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교의 어떤 특정하고 유명한 신전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그 수많은 저명한 신전들 가운데 어느 것일 수 있겠는가? 고전 건축의 가장 장엄한 표본들 가운데 하나는 판테온이라 불린다. 그 이름은 ‘모든 신들의 신전 또는 피난처’를 뜻한다. 그 소재지는 로마이다.+ 로마인들이 정복한 민족들의 우상들은 이 신전의 어떤 벽감이나 구획 안에 신성하게 안치되었고, 많은 경우 로마인들 자신에 의해서도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 이교의 신전 가운데 이보다 더 두드러지게 ‘그의 성소’라 할 만한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는가.”

이제 “매일”이 이교주의이며, “황폐하게 하는 범죄,” 곧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교황권이며, 또한 이교주의의 특별한 성소가 판테온이었고 그 소재의 “처소”가 로마였음을 이미 확인하였으니, 우리는 더 나아가 탐구한다.

“1. 이교주의는 로마의 시민 권력에 의해 ‘제하여졌는가? 교회와 세계의 역사에서 중요하고 잘 알려진 사실에 관한 다음 진술이, 우리는 생각하건대, 그 예언에 대한 대답이 된다. 그것은 최초의 그리스도인 황제인 콘스탄티누스를 가리키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의 통치의 첫 행위는 제국 전역에 칙령을 반포하여, 그의 신민들에게 기독교를 받아들일도록 권고한 것이었다.”++

“2. 로마 곧 그의 성소의 도시 또는 장소인 (판테온)이 국가의 권위에 의해 내던져졌는가? 다음의 발췌문이 이에 답한다: ”

“—콘스탄티누스의 마지막 경쟁자의 죽음은 제국의 평화를 확정지었다. 로마는 다시 한 번 논쟁의 여지 없는 만국의 여왕이 되었다. 그러나 바로 그 고양과 광휘의 시간에, 그녀는 낭떠러지의 가장자리까지 들어 올려져 있었다. 그녀의 다음 걸음은 아래로 향하는 것이었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것이었다. 정부를 콘스탄티노플로 옮긴 일은 여전히 역사가를 당혹하게 한다. 그것은 로마인의 정신에 깃든 오래되고 명예로운 편견들의 전반적 흐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였다. 그것은 동방의 풍습과 기후의 향락에 탐닉하는 어떤 사치스러운 아시아인의 소행이 아니라, 서방에서 태어나 모든 로마인처럼 동방인들의 습속을 경멸하던 강철 같은 정복자의 행위였다. 그것은 또한 예리한 정치가의 행위였으나, 그럼에도 가장 명백한 정도로 비정치적이었다. 그럼에도 콘스탄티누스는 카이사르들의 위대한 성채요 옥좌인 로마를 버리고, 트라키아의 한 미미한 구석을 택하였으며, 자기의 왕성하고 야심찬 생애의 남은 부분을, 하나의 식민지를 자기 제국의 수도로 끌어올리고 수도를 식민지의 무력한 명예와 굴욕적인 세력으로 격하시키는 이중의 수고에 바쳤다.”*

역사가의 펜에서 나온 이 기록은 논평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너무도 명백하다. 예언은 그의 성소의 처소가 내던져졌다고 말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실의 진술이 있는 후에는, 예언 해석에 가장 까다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적용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하여지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일천이백구십 일이 있을 것이요. 기다려서 일천삼백삼십오 일에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우리 앞에 놓인 사실들, 곧 그 ‘매일’이 이교주의이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이 교황권이며, 로마의 권세 안에서 국가의 권위에 의하여 전자에서 후자로의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이제 다만 이것이 언제 예언을 성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더 살펴보면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확정할 수 있다면, 우리 앞의 본문에 있는 예언적 기간들이 기산되어야 할 출발점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3. 예언에서 언급된 사건은 언제 일어났는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문제는 성도들이 언제 교황권의 손에 넘겨졌는가가 아니라, 이교주의에서 교황권으로의 종교적 변화가 어느 시점에 이르러 후자가 국가의 종교가 되고 그 진로를 시작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모든 큰 혁명들과 마찬가지로, 한순간의 일이 아니었다. 그 초기의 작용은 훨씬 오래전부터 드러나 있었다. 바울은 자기 시대에도 이미 불법의 비밀, 곧 죄의 사람,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활동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의 빛 아래서, 멸망의 가증한 것에 관한 마태복음 24:15에서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데, 거기서 주님은 분명히 다니엘 9:27을 가리키고 계신다. 비록 예루살렘이 로마인들에 의해 멸망한 후 70년에 이교주의가 아직 교황권에 자리를 내주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때 나타난 권세가 이름과 형태에 있어서 다소 변형되어 있었을 뿐, 바로 그 권세였으며, 장차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으로서 성도들을 쇠잔하게 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교회를 황폐하게 할 바로 그 권세였음을 이해한다.”

496년에 일어난 프랑스 왕 클로비스의 개종에 이르기까지, 프랑스와 서로마의 다른 나라들은 이교도였다. 그러나 그 사건 이후 우상숭배자들을 그리스도교로 개종시키려는 노력은 큰 성공으로 결실을 맺었다. 클로비스의 개종으로 말미암아 프랑스 군주를 “지극히 그리스도교적인 폐하”와 “교회의 맏아들”이라는 칭호로 부르는 관습이 생겨났다고 전해진다.+ 그때부터 서기 508년 사이에 “동맹들”, “항복 협정들”, 그리고 정복을 통하여 “아르보리키인들”, “서방의 로마 수비대”, 브르타뉴, 부르군트인들, 그리고 서고트인들이 복종하게 되었다.’++

—서방 로마 제국에서의 이교주의는, 비록 그것이 의심할 여지 없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진전을 지연시켰고, 특히 잉글랜드의 경우에서처럼 계속 우상숭배자들로 남아 있던 야만 부족들의 침입으로 시달림을 받은 그러한 민족들 가운데서 더욱 그러하였으나, 이제는 가톨릭 신앙을 억압하거나 로마 교황의 잠식을 저지할 의향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럴 능력을 더 이상 지니지 못하였다.

그때부터 교황적 가증한 것이 이교와 관련해서는 승리를 거두었다. 그 이후의 투쟁은 다른 기독교 분파들과의 투쟁이었는데, 그들은 언제나 이단으로 취급되었으며, 또 제후들과의 투쟁이었는데, 그들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몸을 거스르는 반역자 혹은 분열자로 취급되었다. 유럽의 두드러진 권세들은 이교에 대한 애착을 버렸으나, 다만 그

가증한 것들을 다른 형태로 영속시키기 위해서였을 뿐이다. 이는 가톨릭적 의미에서 이교가 기독교가 되기 위해서는 세례만 받으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주재하는 성직자의 이해관계나 복수가 요구할 때에는, 그들의 재산과 왕좌, 어쩌면 그들의 생명까지도 제단 위에 바쳐져야 하였다. SS

* 『예언 해설』, 제1권, 127.

+ 굿리치의 『Universal Hist.』와 거스리의 『Geog.』

+ 모스하임 『기독교 역사』 제1권, 132, 133.

영국에서 최초의 그리스도인 왕인 아서(Arthur)는 이교의 폐허 위에 그리스도교 예배를 세웠다.* 자신의 역사서에서 사건들의 연대기에 더 정확하다고 자처하는 라팽(Rapin)은 그가 508년에 브리튼의 군주로 선출되었다고 말한다. 제2권, 129.

이 시기에 로마 교황청의 상태는 어떠하였는가? — 심마쿠스는 498년 또는 499년부터 514년까지 교황이었다. 그의 재위는 다음과 같은 주목할 만한 정황들과 사건들로 특징지어졌다:

“1. 그는 로마 교회에 들어갔을 때 이교주의를 떠났다.”

“2. 그는 자신의 경쟁자와 피를 흘리기까지 다투어 교황좌에 이르는 길을 찾았다.” 뒤 팽.

“3. 성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그에게 바쳐지는 칭송에 의하여. ”

“4. 황제 아나스타시우스의 파문에 의하여.+”

“—모스하임은 말한다. 어떤 이들의 견해가 로마 교황들의 지배적인 요구에 얼마나 호의적이었는지는, 모호한 명성의 성직자였던 심마쿠스의 악명 높고도 지나치게 아침하는 추종자 에노디우스의 한 표현만 보아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 기생적인 찬양자는, 그 밖의 여러 무례한 주장들과 더불어, 교황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를 채우며, 그 자리에 세워진 재판관이라고 주장하였다.”++

서방에서 가톨릭 대의에 확보된 세력과 이러한 성공들, 그리고 로마 교황좌의 대리자들과 그 밖의 사절들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콘스탄티노플의 교황파는 로마에 있는 그들의 주인을 위하여 공공연한 적대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508년에 광신과 내전의 회오리바람이 불과 피를 휩쓸며 동방의 수도 거리들을 휩쓸고 지나갔다.

기번은 508-514년의 기사 아래에서, 콘스탄티노플의 소요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 황제의 상들은 부서졌고, 그의 몸은 교외의 한 곳에 숨겨졌으며, 마침내 사흘이 지난 뒤에야 그는 감히 그의 신민들의 자비를 간청하였다. [교황권은 승리하고 있다.] 관을 벗고 탄원하는 자의 자세로, 아나스타시우스는 경마장의 옥좌에 나타났다. 가톨릭 교도들은 그의 면전에서 정통 삼중성송(Trisagion)을 낭송하였고, 그가 전령의 목소리를 통해 자주권을 포기하겠다고 선포한 제안에 환호하였다. 또한 모든 사람이 다스릴 수는 없으므로, 그들이 먼저 군주의 선택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는 경고를 들었고, 그들의 주인이 주저함 없이 사자들에게 넘기도록 정죄한 두 명의 비인기 있는 대신들의 피를 받아들였다. 이 격렬하나 일시적인 소요들은 비탈리아누스의 성공으로 고무되었는데, 그는 주로 우상숭배자들인 훈족과 불가르족의 군대를 거느리고 스스로 가톨릭 신앙의

옹호자임을 선언하였다. 이 경건한 반역 가운데 그는 트라키아를 황폐하게 하고, 콘스탄티노플을 포위하며, 자기 동료 그리스도인들 6만 5천 명을 몰살하였으니, 마침내 감독들의 소환과 교황의 만족, 그리고 칼케돈 공의회의 확립, 곧 죽어 가는 아나스타시우스가 마지못해 서명하고 유스티니아누스의 숙부가 더욱 충실히 이행한 그 정통 조약을 얻어낼 때까지 그러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이 평화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에 의하여 수행된 종교 전쟁들 가운데 첫 번째 전쟁의 결과였다. SS

다음의 Appollos Hale의 발췌문을 인용하면서, 우리는 이 점에 관한 증언을 마치고자 한다: —이제 우리는 우리 시대의 가말리엘들에게, 508년에 이교주의의 성소가 있던 자리(오늘날 “성 베드로의 유산”이라고 주장되는 곳)에서 우리와 함께 입장을 취할 것을 권한다. 우리는 몇 해 전의 과거를 돌아본다. 그러면 북방 야만인들의 거친 이교주의가 명목상 그리스도교 제국이었던 서방 로마 제국 위로 밀려 내려오고 있으며, 곳곳에서 승리하고 있고, 그 승리의 자취마다 가장 야만적인 잔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 . . 제국은 무너져 산산이 조각난다. 이 조각난 영토들의 군주들과 통치자들은 하나씩 하나씩 그들의 이교주의를 버리고 그리스도교 신앙을 공언한다. 종교에 있어서 정복자들이 피정복자들에게 굴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이교주의는 승리하고 있다. 그 옹호자들 가운데에는 엄격하고도 성공적인 한 정복자가 있다. (클로비스.) 그러나 머지않아 그 역시 새로운 신앙의 권능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 신앙의 옹호자가 된다. 그는 여전히 승리하고 있으나, 영웅이자 정복자로서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시점, 곧 주후 508년에 절정에 이른다.

“—같은 해에 또는 그 무렵, 무너진 제국의 마지막 중요한 분할 왕국이, 승리한 그 ‘군주’의 대관식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기독교화된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시기의 교황은 최근에 개종한 이교도이다. 그를 그 자리에 앉힌 피비린내 나는 다툼은 아리우스파 왕의 개입으로 결판이 났다. 그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채우는 자’로서 경배와 경의를 받는다. 원로원은 그의 권세 아래 너무도 깊이 들어가 있어서, 로마 교구의 이익이 그것을 요구한다고 의심되기만 해도 황제를 파문한다. . . . 508년에 동방 제국의 왕좌 아래에서 광산이 폭발한다. 그것이 야기한 혼란과 투쟁의 결과는 그 정당한 군주의 굴욕이다. 이제 문제는, 이교가 그 대리자요 후계자인 교황제의 가증한 것에게 자리를 내어 줄 만큼 충분히 억눌린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이다. 이 가증한 것이 신성과 피의 경력에 나설 수 있는 위치에 놓인 때는 언제인가? 이교를 대신하여 그것이 ‘놓여지거나,’ 혹은 ‘세워진’ 다른 어떤 연대가 508년 외에 있는가? 이 신비한 요부가 아직 모든 희생자들을 자기 권세 아래로 끌어들이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녀는 자기 자리를 차지하였고, 어떤 이들은 이미 그 매혹에 굴복하였다.”

마침내 다른 이들도 굴복되니, 곧 ‘왕들과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방언들’이 그 주술 아래로 끌려 들어가, 비록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여’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게’ 되며, 또 스스로를 하늘의 배타적인 총애를 받는 자들로 여기게 되지만, 그와 동시에 지옥의 정죄를 위한 더욱 쉽고도 풍성한 먹이가 된다.*

우리는 그 연대를 가지고 있다. “매일의 것”이 제거되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진 때는 508년이였다. 이 시점으로부터 계산하면 1290일 곧 1290년은 1798년에 끝나는데, 이미 보인 바와 같이, 그때에 교황은 부오나파르테의 무력에 의하여 세속 권세를 박탈당하였다. 1335일은 그 사건 이후로 45년을 온전히 더 지나 우리를 이르게 한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말할지 모른다. 당신은 어찌하여 그 기간들이 과거에 끝난다고 하는가? 다니엘이 그 날들의 끝에 쉬다가 자기 몫 가운데 서리라고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가? 분명히 그렇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 그러나 다니엘이 자기 몫 가운데 선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점은 우리가 때가 지나감에 대한 설명에 이르고, 그 날들의 끝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을 검토하게 될 때 고찰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여기서 다음 주까지 닷을 내린다.” Review and Herald, 1858년 1월 28일.

프레스콧과 다니엘스의 오류와 위험성; 일해야 할 도시들

(A. G. 다니엘스는 1901년에 총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것은 이 문서가 1910년에 작성되었음을 시사하는데, 그때는 화잇 부인이 다니엘스가 도시들을 소홀히 하고 “매일”에 관한 논쟁에 관여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깊이 염려하고 있던 시기였다.)

이제 최근에 스티브 월버그는, 엘렌 화잇이 매일에 대하여 결코 어떤 입장도 취한 적이 없으므로 자신도 매일에 관하여 입장을 취할 필요가 없으며, 여예언자가 그러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그에게 충분히 타당하다면 자신에게도 충분히 타당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렇다. 엘렌 화잇은 매일에 관하여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밀러 운동가들이 그것에 대하여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였으며, 그것이 이교주의임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교주의가 제거되었을 때 1335일이 시작되었음을 이해하고 있었고, 또한 그 견해 외의 다른 견해들은 오직 어둠과 혼란만을 낳는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1850년의 역사로부터 당신이 입증할 수 있는 바, 참으로 어둠과 혼란을 가져오는 것으로 분리되어 드러난 것은, ‘상번제(The Daily)’가 그리스도의 성소 봉사를 나타낸다는 크로지어의 견해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녀가 ‘상번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 입장을 떠나면 어둠과 혼란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1910년에 엘렌 화잇은 크로지어의 견해와 동일한 이 견해를 추진한 총회장과 W. W. 프레스콧도 책망하였다.

어느 역사학자도 프레스콧과 윌리 화잇과 A. G. 다니엘스가 ‘매일’을 주장할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성소 봉사를 나타낸다는 사상을 주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에 『Manuscript Releases』 제20권의 전체 기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출판되었는가? 그것은 1988년에 출판되었으므로, 1988년에 재림주의를 연구하는 학생들이 그것을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

월리 화이트와 프레스콧과 대니얼스가 재림교회 안에 '매일'에 관한 거짓 견해를 언제 확립하였는가? 그들이 그 일을 이루어 낸 때는 1919년부터 1931년까지이다. 1931년에 이르러서는, 그것은 잊어버려라!! 재림교회는 '매일'이 그리스도의 성소 봉사를 나타낸다고 가르치게 될 것인데, 이는 그들이 배도한 개신교와 천주교에서 나온 성경 해석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 '매일'은 그리스도의 성소 봉사로 규정된다.

아,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들 가운데는 더 잘 알고 있는 이들도 있으나, 그 시점 이후로 흐름은 완전히 돌아섰다.

그리고 1988년에, 바로 그때 곧 프레스콧, 대니얼스, 그리고 월리 화이트에 의해 「날마다」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던 바로 그 시기에 기록된 1910년의 이 진술을 엘렌 화이트 유산관리위원회가 우리를 위하여 발표하였다.

우리의 경험의 이 단계에서 우리는 우리 대회의 중요한 집회에서 숙고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빛에서 우리의 마음이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곳에는 형제 다니엘스가 있었는데, 그의 마음에 대하여 원수가 역사하고 있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원수가 당신의 마음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에 역사하고 계시지 않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대의 마음과 프레스콧 장로의 마음은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들에 의해 작용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탄의 일은, 주께서 그대들에게 제시하도록 영감을 주지 아니하신 자구(字句)들과 세부 사항들이 끌려 들어오도록 그대들의 마음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이었다. 그것들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의 사업에 큰 의미를 지녔다. 그리고 만일 그대들이 자구(字句)나 세부 사항들로 이끌려 벗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사탄이 고안한 일이다. 그대들은 기록된 책들 속의 사소한 것들을 바로잡는 것이 큰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명령을 받았다. 침묵은 웅변이다.

그들은 우라이어 스미스의 저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관한 생각들』에 들어가서 그가 매일 드리는 제사(the Daily)를 이교주의라고 말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월리 화이트와 프레스콧과 대니얼스에 맞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래리 스미스라는 인물이다.

래리 스미스는 누구인가? 그는 우리야의 아들이며, 그가 그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알고 있고 자기 아버지와 함께 서 있다는 것은 이것이다: 매일은 이교주의이다.

나는 말해야 한다. 그대들의 흠잡기를 그치라. 만일 마귀의 이 목적이 오직 성취될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그대들에게는 그대들의 일이 구상에 있어서 가장 경이로운 것으로 여겨질 것처럼 보인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이의를 제기할 만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특징들을 드러내는 것이 원수의 계획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바로 마귀를 기쁘게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 믿음에 속하지 않은 외부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꼭 알맞은 우리 신앙에 대한 한 가지 표상이 제시될 것이며, 그것은 품성의 특성들을 계발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무엇을 하는가? “큰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다.”

매일에 관하여 혼란과 어둠을 가져오는 다른 견해들이 채택되어 왔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그 큰 기별을 열심히 제시하는 데에 사용되어야 할 황금 같은 순간들을 차지하고 말라. 우리가 어떤 주제에 관하여 연구해 온 발표들이 모두 다 조화를 이룰 수는 없을 것이며, 그 결과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사탄이 일어나기를 계획해 온 바로 그것이었다—불일치로 확대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든지.

주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성경 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교리들을 증명하기 시작할 때 에스겔 28장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는 에스겔 28장에서 바로 그 ‘매일’의 근원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에스겔 28장은 루시퍼의 높아짐에 관한 것이며, 그녀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그들이 ‘매일’이 그리스도의 성소 봉사를 나타낸다고 말하려 하면서, ‘매일’에 대한 참된 견해, 곧 자아 높임의 상징을 거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자아 높임을 그들 자신의 경험 속에서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들이 우리 대열 가운데 혼란을 가져올 것임을 강조한다.

이제 여기에는 이상한 영들이 활동할 수 있는 중대한 일이 있다. 그러나 주께서는 멸망해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루어져야 할 사업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사탄은 변장한 채로 우리 대열 속에 끼어들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자리들을 완벽하게 이용할 것이며, 그 모든 사소한 차이들은 확대되어 두드러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또 내가 보이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특별히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처음부터 주께서 이 일의 짐을 장로들인 Daniells나 Prescott에게 맡기지 않으셨음을 보았다. 사탄의 간계가 끌어들이어져야 하겠는가? 이 ‘Daily’가 이처럼 중대한 문제가 되어, 이 중요한 시기에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사업의 전진을 저해하도록 끌어들이어져야 하겠는가? 무슨 이유가 있든지 그러서는 안 된다. 이 주제는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

화이트 자매는 ‘매일’을 이해하고 있었으며, ‘매일’을 그리스도의 성소 봉사라고 가르치는 것은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들에게서 나온 것이요, 그것이 오직 혼란과 흑암만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다. 또한 그녀는 ‘매일’이 이교주의를 나타내며, 그 ‘매일’이 제거되었을 때 1335년의 시기 예언이 시작되었다는 선구자들의 입장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저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든지 간에, 그녀는 그 차이를 알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그러서는 안 됩니다. 이 주제는 제기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유입될 영이 금지하고 억제하는 성격의 것이 될 것이며, 루시퍼는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세력들이 그의 일을 시작할 것이며, 그리하여 우리 대열 가운데 혼란이 초래될 것입니다. 당신은 시험하는 문제가 아닌 의견 차이를 찾아내는 일에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침묵이 곧 웅변입니다. 이 문제는 내 앞에 모두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계획한 바와 같이, 만일 그가 우리 백성 가운데 누구라도 이 주제들에 말려들게 할 수 있다면, 사탄의 대의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지체 없이 착수해야 할 일은 그 일이지, 의견의 [차이]를

표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에게서 나간 그 사람들을 충동하여 악한 천사들과 연합하게 하고,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로 우리의 일을 지연시키려 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원수의 진영에는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는가. 굳게 멍치라, 굳게 멍치라. 모든 차이는 물어 버리라. 지금 우리의 일은 우리의 모든 육체적 힘과 두뇌와 신경의 힘을 바쳐 이러한 차이들을 제거하고, 모두가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만일 사탄이 그의 크나큰 성별되지 않은 지혜로 조금이라도 틈을 탈 수 있도록 허락된다면, [그는 기뻐할 것이다].

이제 내가 그대가 일하고 있는 방식을 보았을 때, 나는 그대가 계속 나아가 우리를 떠난 자들에게 우리 대열 가운데 혼란을 가져올 최소한의 기회라도 준다면, 그 전반적인 상황과 그 결과를 다 파악하였습니다. 그대의 지혜의 부족은 바로 사탄이 바라는 바와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대의 큰 소리의 선포는 성령의 감동 아래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대에게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곧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 온 사람들의 글에서 흠을 찾아내는 그대의 행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것이 다니엘스 장로가 백성에게 주고자 하는 지혜라면, 결코 그에게 공식적인 직분을 맡기지 마십시오. 이는 그가 원인에서 결과를 추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그대가 침묵하는 것이 그대의 지혜입니다. 이제, 살아 있지 않은 사람들의 출판물에서 흠을 찾아내는 것과 같은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그대들 중 누구에게도 하라고 주신 일이 아닙니다. 이는 만일 이 사람들—다니엘스 장로와 프레스콧 장로—이 도시들에서 일하는 일에 관하여 주어진 지시를 따랐더라면, 진리를 확신하고 회심하였을 많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며, [지금] 결코 도달할 수 없게 된 위치에 있는 유능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은 하나의 큰 가족으로 여겨져야 한다. 그런데 그대들에게는 길어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의 샘이 있는데도, 왜 그대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증언들을 가지고 여러 해 동안 세상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었는가? 참된 종교는 우리에게 모든 남자와 여자를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도록 가르친다.

이것은 여러 해 동안 인쇄되어 왔다: —「균형 잡힌 정신」, 앤드루스 장로에게 보내는 증언. 마음은, 언제 말해야 하며 어떤 짐을 맡아 지고 감당해야 하는지를 아는 능력이 되도록 계발될 수 있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사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자기 지혜를 높이며 의견의 차이를 끌어들이는 길을 추구하는 것을 [보았을 때] 당신을 크게 염려하였다. 주께서는 잠잠히 있는 것이 그들에게 지혜일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요구하신다. 당신이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화가 필요하다. 이제 막 시작된 일이 하나 있으니, 모든 목사에게서, 모든 [한] 합회의 회장에게서 지혜가 나타나게 하라. 그러나 여기에는 여러 해 전에 당신이 붙들어야 할 일이 있었는데, 바로 이 일을 위하여 당신이 목소리를 높여야 할 곳에서 당신이 필요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모든 백성에게 그들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관하여 특별한 지시를 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주의 의를 이루기 위해 일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당신은 주의 길을 이해할 수 있다. 나는 당신이 회장으로 세워진 후, 당신 자신의 고안대로 일을 이끌고자 하는 당신의 의도를 보았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맡기지

않으신 일을, 당신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이제 당신의 일은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당신을 받아들여 섬기게 하셨다면 가능한 모든 필요를 풀어 주는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매우 일찍부터 지혜와 성별된 판단이 당신에게서 나타나지 않았다는 증거를 보여 주었다. 당신은 주께서 빛을 주시지 않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을 문제들을 불쑥 드러내었다.

나는 그와 같은 성급한 조치들, 곧 또 한 해 동안이라도 그대를 대회의 회장으로 선출하는 것과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었다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이 문제를 기도로 주님 앞에 가져가기까지 주께서는 더 이상의 그러한 성급한 처리를 금하신다. 그리고 대회의 회장 위에 놓인 주의 사업이 지극히 엄숙한 책임이라는 기별이 그대에게 이르렀으므로, 그대는 'Daily'의 문제에 관하여 그대가 행한 것처럼 격앙되어 나서서 그대의 영향력이 그 문제를 결정하게 되리라고 생각할 도덕적 권리가 전혀 없었다. 무거운 책임들을 저 온 장르 해스컬이 있었고, 장르 어윈도 있으며, 내가 언급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이 또한 무거운 책임들을 지고 있다.

장년들의 사람들에 대한 그대의 존중은 어디에 있었는가? 모든 책임 있는 사람들을 불러 그 문제를 숙고하지 않고서 그대가 무슨 권위를 행사할 수 있었는가?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문제를 조사해 보자. 우리는 이제 그대가 또 다른 일 년 동안 그 사업을 수행하려는 열심을 보이는 것이, 등한히 여겨진 그 사업 앞에서, 과연 주의 판단인지 다시 숙고해야 한다. 그대와 연합할 도움을 받아 그대가 그 사업을 또 다른 일 년 동안 수행하게 된다면, 그대와 장르 프레스콧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하라. 주께서는 그대들 안에서 다른 경험의 나타남을 보셔야 할 것이다. 이는 만일 어떤 사람들이 바로 이때 다시 회심할 필요가 있다면, 그들은 바로 장르 대니엘스와 장르 프레스콧이기 때문이다.

일곱 사람을 택하되, 그들은 지혜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재회심의 증거를 나타내는 자들이어야 한다. 원인에서 결과로 이르는 이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눈이 멀어, 그 사업의 책임을 저 온 사람들과 이 합회장들을 무시하며, 두 해가 넘도록 그 사업을 짊어져 온 사람들이 도외시되고, 그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해 동안 그들 앞에 제시되어 온 바로 그 사업, 곧 도시들을 위한 사업을 등한히 하게 하는 것처럼 충동적인 결과가 일어나며, 또한 노련한 사람들에게서 자문을 구하는 일에는 전혀, 혹은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그들이 백성에게 주고자 택한 것들을 선포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러한 위대하고도 놀라운 사업을 맡길 사람들로써 그들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그 자체로 증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신 분이 아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사업이 이러한 이상한 방식으로 수행되도록 결코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 책들은 그대로 두라. 만일 어떤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변경 가운데 조화를 이루게 하시겠지만, 하나의 기별이 그에 수반되는 큰 책임들과 함께 사람들에게 맡겨졌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역사하며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신실함을 요구하신다. 장르 다니엘스와 장르 프레스콧은 둘 다 다시 회심할 필요가 있다. 이상한 일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세상에 오셔서 행하시고자 하신 사업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 그리고 참으로 회심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들을 행할

것이다.”

우리는 모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그 일을 이루어야 한다. 우리는 위기에 이르렀으니—곧 이 준비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에 일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시도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 대니얼즈 장로여, 그대는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그대가 해 온 것처럼 자기 목소리를 높이 내는 것을 스스로 자유롭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총회의 회장은 통치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라. 그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 회장의 직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과 연합하여 일한다. 그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 펜에서 나온 인쇄된 책들의 글을 간섭할 자유가 없다. 그들은 다스리고 지배하는 권세를 덜 나타내지 않는 한, 더 이상 지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위기가 이르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dishonored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께서는 손대지 않은 도시들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신다. 이제 그것에 대한 인정은 이러해야 한다. 곧, 왕권적 통치는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이 세상의 위기이다. 이제 나는 구원하거나 멸할 권능이다. 이제는 모든 사람의 운명이 내 손에 달려 있는 때이다. 나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생명을 주었다. 그리고 “나도 땅에서 들리면” 내가 베푼 구원의 은혜는, 신적 형상을 따라 빛어지고 나와 하나가 될 모든 이들이 나의 구속의 은혜의 능력으로 내가 일하는 것처럼 일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입증할 것이다. 누구든지 원하면, [그로 하여금] 주께서 주시는 권면 아래 책임 있는 위치에 있을 때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행하기 위하여 그의 형제들과 함께 굳게 손잡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온전한 희생으로 주신 분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 일하고자 가장 간절히 힘쓰게 하라. 나는 우리 목사들에게 말한다. 우리가 우리의 도시들에서 사업에 착수할 때에는 말씀의 봉사에 차분하고도 거룩한 엄숙함이 수반되게 하라. 우리가 만일 ... 한다면 사람들의 마음에 합당한 인상을 줄 수 없다. ... [이 페이지의 아래 삼분의 일이 공란으로 남아 있음.]

나는 나의 일기에서 옮겨 적는다.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기도하며, 그 단순성 가운데 있는 모든 말씀을 믿으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와 함께 믿음 안에 있었으나 이제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에게 귀를 기울이게 된 사람들 앞에 잘못들이 제시된다면, 당신이 무엇을 얻겠는가? 당신은 마귀의 편에 설 것인가? 아직 일하지 않은 발들에 주의를 기울이라. 전 세계적인 사업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나는 존 켈로그에 관한 표상들을 받았다.

매우 매력적인 한 인물이, 그가 제시하고 있던 그럴듯한 논변들의 사상, 곧 진정한 성경 진리와는 다른 견해들을 대표하고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어떤 것을 갈망하고 목말라 하던 자들은 [그처럼 그럴듯한] 사상들을 제시하고 있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프레스콧 장로는 큰 위험 가운데 있었다. 대니얼스 장로도, 만일 이러한 견해들이 어디서나 말해질 수만 있다면 그것이 마치 새로운 세계가 될 것이라는 미혹에 휩싸일 큰 위험 가운데 있었다.

그렇다. 그것은 그럴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이처럼 사로잡혀 있는 동안, 나는 다니엘스 형제와 프레스콧 형제가 영적[강신술적] 외양을 띤 사상들을 그들의 경험 속에 엮어 넣고 있으며, 우리 백성을,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속이게 될 아름다운 감상들로 이끌고 있는 것을 보았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결코 미혹되지 않을 것이나, 그 택하심을 받은 자들과 함께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미혹될 자들이 있을 것이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이다. 미련한 처녀들은 미혹될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곧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려는 시험이 존재하는 때에, 슬기로운 처녀들이 성령의 부어 주심을 받고 있다면, 미련한 처녀들은 무엇을 받고 있는가? 데살로니가후서에 나오는 강한 미혹이다. 우리는 그것도 매일의 제사와 관련하여 다루게 될 것이다.

—“그들은 영적[심령주의적] 외양을 띤 정서를 자신들의 경험 속에 짜 넣고 있었으며, 가능하다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할 아름다운 정서로 우리 백성을 이끌고 있었다.”

심령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무엇인가?

사울 왕의 이야기에 관하여, 사무엘은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거역하는 것은 마술의 죄와 같고.” 거역은 곧 마술이다.

사울은 결국 어디에 이르게 되는가?

청중 가운데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과 함께.

엔돌의 신접한 여인과 함께.

사울 왕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이르게 되는 이 일련의 사건들을 초래하도록 그가 행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는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두었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시를 받았으나, 그대로 나아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행하였다.

영매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의 말을 위에 두는 것이다. 모든 것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된다. 그것이 곧 마술이다.

주술은 사탄이 어떻게 당신을 자기의 영향 아래로 끌어들이는지를 식별하는 것이다. 그가 어떻게 당신을 홀리는가 하는 것은 마술적 기만을 다루는 마술 용어이다.

당신이 마술에 홀릴 때, 가장 먼저 홀리는 자는 누구인가? 마술사이다.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말을 위에 둘 때 시작된다. 그것이 곧 마술이며, 그것이 곧 반역이고, 그렇게 홀린 자는 바로 나 자신이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다니엘스와 프레스콧에게 일어난 일이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다니엘스와 프레스콧은 어떤 견해를 끌어들이려 하고 있었는가? 곧 “매일”에 대한 그릇된 견해였다.

그러면 매일의 참된 견해는 무엇인가? 곧 그것이 이교주의이며, 이교주의는 자아를 높이는 종교라는 것이다. 그것은 하늘 궁정에서 시작된 종교로서, 사탄이, 곧 사탄이, 자기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고 인류의 역사 속에 불법의 비밀을 들여왔을 때 시작되었다.

불법의 비밀은 우리를 홀리게 하는 사탄의 역사이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 자신의 말이나 그의 말을 더 위에 두게 하려는 사탄의 역사이다.

제 생각을 따라오고 계십니까?

“iniquity”를 찾아보라. Strong의 용어 색인에서는 “iniquity”를 정의해 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어근까지 내려가 살펴보면, “iniquity”의 어근은 무엇인가? 알파, 알파이다. 그것이 곧 알파 배도이다.

다니엘스와 프레스콧이 이 어리석은 견해를 밀어붙이고 있었던 때는 언제였는가? 바로 알파 배도의 시기였다.

그러므로 바로 여기에서 화잇 자매가 택하심을 받은 자들까지 미혹하는 일과 에스겔 28장을 읽는 것에 관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놓치지 마십시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매일’이라는 것이 교리적으로 그릇될 뿐만 아니라, ‘매일’에 대한 그릇된 견해를 전파하려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기들의 말을 두게 하여, 그들 자신이 마법에 걸린 자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반역으로 다른 이들을 홀리기 위하여 사탄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형제들이 그들의 기만적인 사상들 속에서 결함을 보게 될 것이며, 그 결함들이 진리를 불확실한 가운데 두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내 펜으로 기록해야 한다. 그런데도 그들은 마치 자신들에게 큰 영적 분별력이 있는 것처럼 나설 것이었다. 이제 나는 그들에게 내가 이 일을 보게 되었을 때, 라고 말해야 한다.

사람들은 “아, 엘렌 화잇은 그 ‘매일’에 대해 입장이 없다”고 말한다.

“Elder Daniells가 ‘—Daily’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옹호하면서 나팔같이 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을 때, 내가 이 문제에 대하여 보게 되었고, 그 이후의 결과들이 제시되었다. 우리 백성은 혼란에 빠지고 있었다. 나는 그 결과를 보았으며, 그 후 내게 다음과 같은 경고들이 주어졌다. 곧 Elder Daniells가 그 결과를 돌보지 아니한 채 그렇게 감동을 받아 자기가 하나님의 영감 아래 있다고 믿도록 자신을 내맡긴다면,”

이것이 곧 강신술이다. 그는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영감을 받고 있다고 믿고 있다.

만일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다니엘스 장로가 이처럼 감동을 받아 자신이 하나님의 영감 아래 있다고 믿도록 내버려 둔다면, 회의주의가 우리 대열 가운데 곳곳에 뿌려질 것이며, 우리는 사탄이 자기의 기별을 전하는 곳에 있게 될 것이다. 굳어진 불신과 회의주의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려질 것이며, 기이한 악의 작물들이 진리를 대신하게 될 것이다. Ms 67, 1910, 1–8. Manuscript Release, volume 20, 17–22.

오늘날 재림교회 전반에 걸쳐 악의 기이한 작물들이 자라나고 있다.

엘렌 화잇은 2520에 대한 선구자들의 이해를 지지한다.

엘렌 화잇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매일”이 이교주의를 나타낸다는 선구자들의 이해에 자신의 지지를 표명한다.